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 브라이언의 귀향

(BRIAN'S RETURN 翻譯論文)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韓英學科

梁喜晶

2015年 2月

# 브라이언의 귀향

(BRIAN'S RETURN 翻譯論文)

指導教授 박 경 란

梁 喜 晶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梁喜晶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2014年 12月

## Abstract

This thesis is a translation of the book, *Brian's Return* by Gary Paulsen.

Gary Paulsen is famous for *Hatchet*, the first of his books about Brian, a young teenager who had to learn how to survive in the wilderness in Northern Canada. In *Brian's Return*, Brian had been found and rescued two years earlier, and he went back to school and tried to get along with his peers, but he found that he could not fit into society after surviving on his own in the woods. Life as most people knew it did not seem real to him anymore. Sixteen-year-old Brian hasn't been able to forget his life in the wilderness. Now that he's back in civilization, he can't find a way to make sense out of high school life. He feels disconnected, more isolated than he did alone in the North. After some trouble at school, a blind counselor named Caleb encourages him to return to the north woods, and Brian packs his gear and heads "back in," for only the wild.



*Brian's Return* is a good book for escape because it takes the reader into another world. The book is in the genre of realistic fiction, which is one of my favorite genres, because it is like nonfiction, but has fictional elements as a story. It also has some great survival scenes that are sure to surprise absolutely anyone. The book is not that long, but the writing is great in it. At the end of the book there is an author's note where he explains that most of the things Brian experienced were very close to what he had actually experienced. That made the book much more meaningful to think about how this could all actually happen!

## 감사의 글

이 책을 번역하면서 나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통역번역대학원을 늦깎이 학생으로 입학한 순간부터 시작된 자신과의 싸움이 이 책을 번역하면서 다시 시작된 것이다. 손쉽게 남이 번역해 놓은 책을 읽었을 때는 몰랐던 어려움을 알게 되었다. 책 한권을 독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글을 써나가는 과정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아 고생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체력이 바닥나고, 눈도 침침해서 책을 읽는 것도 쉽지가 않았다. 이 번역을 끝내며 나이가 들어 도전한 이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먼저 부족한 제 논문에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고생하신 박경란 교수님, 매섭게 저를 질책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신 김재원 교수님,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김원보 교수님. 부족한 저를 격려하고 지도하느라 애쓰신 세 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학교까지 늘 데려다 주고 사업하는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도 나를 지원해 준 남편, 멀리서 늘 엄마를 격려하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준 군대에 있는 아들, 엄마 일을 대신해 집안일을 해 준 딸들, 교통사고 나서 다쳤어도 나를 위해 논문을 검토해준 현수, 대학원 생활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 준 13기 학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공부해서 뭐에 쓰겠냐고 꾸지람을 하시던 시어머님이 지금은 머느리를 자랑하고 다니는 어머니가 되셨다.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딸들과 아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기쁘다.

## 브라이언의 귀향에 보내는 찬사

★ “이 작품은 대담하고 자신감에 넘치며 설득력이 있고 초자연적인 주제들이 아주 강력하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 파블리셔즈 위클리, 별점 하나



★ “폴슨은 자신의 실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야생에서의 브라이언의 생활을 생생하게 표현했다.

- 커커스 리뷰, 별점 하나

“폴슨은 언제나 현장에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신중하고도 자세하게 기술함으로써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이끌어 간다.

- 혼 북 매거진

# 브라이언의 귀향

## 게리 폴슨

수상작, 소설 『손도끼』의 작가



게리 폴슨의 저서들

*Alida's Song • The Amazing Life of Birds • The Beer Fields*

*The Boy Who Owned the School*

The Brian Books: *The River, Brian's Winter, Brian's Return,*  
*and Brian's Hunt*

*Canyons • Caught by the Sea: My Life on Boats*

*The Cookcamp • The Crossing • Danger on Midnight River*

*Dogsong • Father Water, Mother Woods • Flat Broke • The Glass Café'*

*Guts: The true Stories Behind Hatchet and the Brian Books*

*Harris and Me • Hatchet*

*The Haymeadow • How Angel Peterson Got His Name*

*The Island • Lawn Boy • Lawn Boy Returns*

*The Legend of Bass Reeves • Liar, Liar • Masters of Disaster*

*Molly McGinty Has a Really Good Day*

*The Monument • Mudshark • My Life in Dog Years*

*Nightjohn • The Night the White Deer Died*

*Notes from the Dog • Puppies, Dogs, and Blue Northers*

*The Quilt • The Rifle*

*Sarny: A Life Remembered • The Schernoff Discoveries*

*Soldier's Heart • The Time Hackers • The Transall Saga*

*Tucket's Travels (The Tucket's West Series, Books One through Five)*



*The Voyage of the Frog • The White Fox Chronicles*

*The Winter Room • Woods Runner*

그림 책들: *Canoe Days, Dogteam*, 삽화 Ruth Wright Paulsen



이 책은 소설작품이다. 이름, 인물, 장소와 사건들은 작가가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 낸 것이거나 허구적으로 지어낸 것이다. 고인이든 현존인물이든지 간에 실제 인물과 사건들과 배경이 유사한 경우는 전적으로 우연의 일치이다.

출판물 저작권은 ©1999년 Gary Paulsen에게 있음.

표지 저작권은 ©2003년은 Bruce Emmett에게 있음.

모든 판권 보유. 뉴욕소재 랜덤하우스사의 자사인 랜덤하우스 어린이용 도서발행사 Ember에 의해서 미국에서 출판되었음. 원래는 뉴욕 랜덤하우스 어린이용 도서발행사인 Delacorte Press사가 1999년 미국에서 양장본으로 발행하였음.

잉겔볼과 출판사심벌은 랜덤하우스사의 등록상표이다.



저희 웹사이트 [www.randomhouse.com/teens](http://www.randomhouse.com/teens)로 방문해주십시오.

교육자와 사서 여러분의 다양한 학습도구가 필요하다면

[www.randomhouse.com/teachers](http://www.randomhouse.com/teachers)로 들러주십시오.

의회도서관에는 이 소설의 양장본에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다.

Paulsen, Gary.

Brian's Return/Gary Paulsen. 초판.

p. cm.

개요: 브라이언은 야생에서 홀로 살아남은 후 더 이상 도시에서 살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속한 곳으로 되돌아가야만 한다.

ISBN 978-0-385-3250-4(he : alk. paper) -ISBN

978-0-385-90223-6(glb)-ISBN978-0-307-43319-0(e-book)

( 1 자존감- 허구. 2 야생지역 - 허구. 3. 생존 - 허구.) I. Title.

PZ7.P2843 BP 1999 ( Fic) -dc21 98024278


ISBN 978-0-307-92960-0( tr. pbk.)

RL : 5.7

미국에서 인쇄되었음.

10 9 8 7 6 5 4 3 2

Ember사 2012년 초판

 제주시립도서관  
랜덤하우스 어린이용 도서 출판사는 미국헌법 일차 수정조항을 지원하며 책을  
읽을 수 있는 권리를 높이 기립니다.

이 책을 린다를 보살피 주신데 대한 보답으로 엘라나에게 바칩니다.



## 이 책에 대한 소고

브라이언은 『손도끼』(*Hatchet*)와 함께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독자들은 브라이언이 거의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이는 브라이언에 대해서 친구로서 좀 더 알기를 원하기도 한다. 나도 동감한다. 브라이언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는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나는 속편과 대체속편인 『강』(*The River*)과 『브라이언의 겨울』(*Brian's Winter*)을 저술했다. 이 세 번째 소설 브라이언의 귀향은 브라이언이 결국 집으로 돌아온 뒤에 브라이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원하는 독자들에게 대한 해답이다.

브라이언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에 젖어, 조용히 앉아서 카누를 수련 일을 따라 떠다니게 두었다. 그의 오른쪽으로는 한 시간 전에 비행기를 타고 건너왔던 작은 호수의 해안선이 펼쳐져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소나무, 가문비나무, 포플러나무와 자작나무들과 무성한 잡목으로 이루어진 북부 특유의 숲으로 둘러싸인, 대략 80에이커 정도의 원형 판 모양의 호수가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날은 늦은 봄 -정확히 6월 3일-이었는데 호수에는 많은 생명들이 우글거리고 기어 다니거나 웅웅거리고 날아다니고 있었다. 모기와 파리들이 들끓어 브라이언에게 달려들기도 했지만 이제 그는 조그만 흡혈귀들에 놀라서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던 기억을 떠올리고는 미소를 지을 뿐이다. 그는 카누의 한 가운데에 불을 피우게 만들어 놓은 낡은 커피 캔과 약간의 자작나무껍질을 준비하고는 거기에 불을 붙이고 녹색 포플러 잎 한 움큼을 그 작은 불에 넣었다. 그러자 연기가 소용돌이치며 나와 카누 앞뒤로 퍼져 나가서 곤충들이 그의 주변에서 떨어져 나갔다. 브라이언은 거의 200 파운드가 되는 다른 장비와 함께 이번에는 방충제도 가지고 왔지만, 방충제냄새가 싫었고 어떨 때는 그 냄새가 연기보다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진딧물, 사슴파리와 말파리들에겐 방충제가 전혀 듣지 않았는데 심지어 파리들이 그걸 핥아대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 파리들은 연기를 싫어하였기에 카누에 잘 달라붙지는 않았다.

이런 소동에서 벗어나니 호수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움직임들도 눈으로 들어왔다. 브라이언은 여전히 꿈적하지 않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고 있을 뿐이었다.

왼쪽 후미부분에서 비버 한 마리가 꼬리로 물을 찰싹거리며 잠수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는 침입자에 대한 경고이자 사람을 신고 연기를 내뿜는 낮선 통나무 덩어리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다. 브라이언은 혼자 웃음을 지었다. 그전에 그는 비버가 어떤 동물인지를, 기술자이면서 가족위주의 집을 짓는 건축가란 사

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유럽의 도시들 대부분이 비버가 기초를 세웠다는 사실을 책에서 본 적이 있었다. 비버가 맨 처음에는 강가의 나무들을 쓰러뜨리고 그 나무들을 댐처럼 쌓았다. 강이 범람하면서 더 많은 나무들이 쓰러지게 되었고, 비버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되어, 더 이상 갇혀 먹을 나무껍질도 없게 되자 자리를 떴다. 나중에는 쌓였던 나무들이 무너져서 강물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비버가 나무를 쓰러뜨렸던 강가를 따라 커다란 빈 땅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빈 터가 만들어진 곳에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고 도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런던과 파리과 같은 도시들도 처음에는 비버가 기초를 닦아서 자리를 잡고 살았던 곳이다.

오른편 앞쪽에서 사슴 한 마리가 초록빛 덤불숲을 지나면서 내는 묵직한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새끼 사슴의 작은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수사슴일 것이다. 틀림없이 카누에서 나는 연기를 맡고 다른 곳으로 피하고 있는 벨벳 같은 털이 있는 뿔 달린 수사슴일 것이다.

개구리 한 마리가 6 피트 정도 떨어진 수련 앞에서 뛰어올랐다가, 북부 강 꼬치고기가 호수의 수면을 활궤는 듯이 날카로운 공격으로 덤벼들자 개구리는 아슬아슬하게 피해 물속으로 도망가면서 수련 꽃잎을 툭 차니 잎들이 뒤집어 지면서 옅은 색의 뒷면을 내보였다.

이때 어디선가 매 한 마리가 나타났고, 브라이언은 시선을 돌렸으나 호수 주위의 나무 잎들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그 때는 사냥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쥐를 잡아서 어린 새끼들이 있는 둥지로 물고가고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사냥할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이때 브라이언에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매는 살생하기 위해서 사냥하지 않으며 오직 먹기 위해서 사냥을 하지 않는가. 물론 그 매도 다른 육식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먹기 위한 사냥을 해야 했겠지만 어디까지나 음식물을 얻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었다. 인간들만이 운동 삼아, 우승컵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브라이언은 자기도 매와 마찬가지로 생각했다. 그는 노를 옆으로 눕혀서 저

있고, 천천히 저으면서 조용히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수평으로 노를 저어 후진하였다. 앞으로도 먹기 위해서나, 아니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살생을 할 것이다. 그 밖의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

지난 2년 동안, 데렉과 강가에서 함께 했던 시간만 제외하고, 브라이언은 외로운 고뇌의 시간 속에서 숲을 생각나게 하는 입을거리나 볼거리를 찾으려고 애썼다. 그는 숲, 호수, 야생을 생각하며 그리워했고, 때로는 너무도 그리워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총-사냥관련 잡지들과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냥과 낚시 비디오는 그를 구역질나게 만들었다. 인간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슴을 쏘기 위해 고속무기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잠복소나 지프차 뒤에 숨어서 총을 쏘기도 하며 썩은 고기를 구멍에 넣어 곰을 유인하여 차를 멈춰 서게 할 수도 있는 총으로 쏘기도 하고, 큰 대회에 나가 아주 성능이 좋은 배를 타고 고기의 위치를 낱알이 파악 할 수 있는 전기 장비를 이용해서 취미로 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농어를 잡기도 한다.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스포츠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는 것이어서 실은 사냥을 하고 있거나 고기잡이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에 어떤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생을 하기 위해서 살생을 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브라이언은 그런 잡지를 읽거나 그런 비디오를 보는 걸 그만두었다. 브라이언이 야생에서 생존했기 때문에 유명하게 되었고 몇몇 잡지사들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일부 헌팅쇼와 스포츠 쇼에서 하는 것처럼 인터뷰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모든 걸 잘못 받아들이고 있었다. 아주 잘못 받아들이고 있었다.

“소년이 야만의 야생을 정복하다.” 몇몇 잡지사들이 표지의 광고는 이렇게 나와 있기도 했다. “자연을 정복하는 방법을 배워라…”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다. 브라이언은 그 어떤 것도 정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이 그를 혹독하게 가르쳤다. 그가 굶힐 줄 알고, 주는 법을 알고, 생존하는 법을 알게 될 때까지 자연이 그를 혼내면서 그의 우둔함을 꾸짖었다. 그러면서 브라이언은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 인간은 무언가를 하려고 하나 그 성패는 하늘에 달려있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브라이언은 전혀 자연을 정복한 게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자연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자연이 그의 일부가 되었다. 아니 자연이 그의 전부가 된 것일 것이다.

카누가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다고 그는 생각했다.

브라이언은 자신이 오지에서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다시 오지로 돌아오게 만든 일련의 사건들을 굳이 이름 붙여야 한다면, 소음이라고 이름 붙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시 한 번 노를 더 저어 나가자 카누는 매끄럽게 수면을 따라 나아갔다. 그것은 케블라섬유로 만들어진 ‘래프트’ 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카누였는데, 길이는 16피트이고 무게는 짐을 싣지 않은 상태로 52파운드로 물고기 꺾질처럼 부드러웠다. 카누는 자연과 호수 수면과 바람에도 잘 어울려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브라이언은 노력했다. 다시 일상생활에 적응하려고 정말 있는 힘껏 노력했다.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말해주고 처음에 어떻게 불을 지폈는지, 화살 만드는 방법, 사냥하는 방법 등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다하고, 유명세도 시들해지고 난 후에 브라이언이 처한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고, 그는 정말 세상에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마음이 어쨌든, 그는 그가 마치 정상인 것처럼 행동했다.

학교. 그는 학교로 돌아왔고 옛 친구들과 다시 친해지려 노력했다. 모두가 여전히 친구들이었고, 그들의 친구로 돌아온 그를 반겨주었다. 문제는 친구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있었다.

“우리 쇼핑몰에 가서 비디오 게임이나 하자.” 라고 친구들이 말하곤 했다. 스포츠볼 하자고 한다거나 자전거를 타자고 한다거나 그 외에 다른 비슷한 것을 하자고 했으면 하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전자총이나 광선총으로 화면에 쿵쿵거리며 걸어 다니는 가상의 적에게 쏘아대는 스포츠는 브라이언이 했던 생생한 삶, 무스가 자신을 공격했던 일, 아주 극한 기아의 상태에 처했던 일, 생각하고 머리를 써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삶 같은 것에 비하면 멍청하고 활기가 없는 것 같이 보였다. 그는 게임에 빠져들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다. 게임에 빠

진다거나 믿는 것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할 수 있다고 증명해 보이려고 과격한 게임을 만든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암벽등산가들, 과격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들과 야생 프로그램들에서 볼 수 있는 위험성을 동반하는 과격함은 도시의 아이들, 부잣집 아이들을 강인하게 만들고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모든 게임들은 그렇지 않다.

브라이언은 떠나버렸다. 어떤 여자애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누구라던가, 어떤 애는 멋있고, 어떤 애는 멋있지 않다는가, 어떤 애가 무슨 파티에 참석했다고 하는 이야기나, 저 애는 마약을 하고 있고, 저 애는 마약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이 모든 것이 브라이언을 에워싸서 혼란스럽게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공감하고 관심을 보이려고 노력했다. 그러다 결국, 어느 날 저녁, 혼자 방에 앉아 있다가, 자신은 조금도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브라이언은 고독을 찾았다. 사람들과 있을 때나 이야기에 공감하고 웃을 때나 이야기 할 때도 마음으로는 혼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때로는 자신의 생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얽매어 마치 이야기 하고 있는 자신이 제 3자가 되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 브라이언이 있고 빌에게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늘 밤 영화 보러 갈 수 없다고 말하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다. 그에게서 현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정신적으로 다르다거나 정신적으로 병든 것은 아니었지만 정말 많은 것들에 싫증을 느꼈다. 마을에 나무울타리와 나무들이 있는 작은 공원이 있었는데 그 공원에 점점 더 자주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공원을 지나 걸었고 나무아래에 멈춰서 눈을 감고는 숲과 바람과 잎들의 움직임과 끊임없는 소음이 없는 세상을 기억했다.

자신의 생각을 심하게 방해해서 싫어하게 된 자동차나 사이렌, 텔레비전의 소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 머리 위를 날아가는 비행기들 소리, 팡하는 문 닫는 소리, 이 모든 소리가 합쳐져서 하나의 정체된 소리, 소음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하필이면 매키의 피자 텐 앞문 입구에서 터지고 말았다. 브라이언은 세상에 무관심해져서 때때로 브라이언 주변의 사회생활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 점을 브라이언이 잘 몰랐기 때문에 칼 렘머즈라는 소년의 화를 돋우었다. 칼은 덩치가 큰 축구선수라서 별명도 헐크였는데 브라이언의 인기를 부러워했고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였다. 브라이언은 칼을 잘 몰랐다. 칼은 분명히 브라이언이 자신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 했다고 생각했다. 브라이언이 학교를 마치고 한 여자애와 남자애와 같이 걸어오고 있을 때 칼도 맥키의 피자 텐에서 막 나오고 있었다. 브라이언은 같이 온 친구와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아이는 키가 작고 마른 친구였고 이름이 해일리였고 여자아이는 수잔이었다. 그녀는 브라이언이 대단한 친구라고 생각하고는 그를 좀 더 알고 싶어서 브라이언과 이야기하려고 그에게 피자를 사겠다고 초대했다. 해일리는 근처에 서 있었고 수잔이 실망하게도 해일리 자신도 초대되었다고 생각했다.

칼은 수잔에게 데이트를 한 번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수잔이 브라이언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는 더욱 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칼은 유리문을 통하여 브라이언이 수잔과 함께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칼은 그의 몸 전체에 무게를 실어 문을 세게 열려고 하였는데, 일부러 브라이언을 부딪쳐 쓰러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잘못 되었다. 브라이언은 한쪽으로 너무 떨어져 있었고 문은 브라이언을 빗나갔다. 문이 해일리를 덮쳤고 그의 코를 쳐버렸다. 바로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해일리가 넘어지면서 뒤에 있는 수잔을 쓰러뜨렸다. 둘 다 뒤 쪽으로 휩 넘어졌고 수잔은 바닥에 쓰러졌다. 해일리 아래에 수잔이 넘어지면서 무릎을 빼었다.

‘아...’ 수잔이 신음을 했다.

잠깐 동안 모든 상황이 정지되었던 것 같았다. 문이 열려있고 칼은 우두커니 서 있었고, 조금 떨어져 서 있던 브라이언은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숲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문을 모르는 표정이었다. 수잔과 해일리는 바닥에 넘어졌고 해일리의 얼굴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으며 수잔은 무릎을 움켜쥔 채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무슨-?’ 칼이 브라이언의 머리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려고 할 때, 브라이언은 칼을 뒤돌아보았다. 그는 칼의 주먹이 자기에게 제대로 맞았으면 머리통이 날아가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브라이언은 칼이 자신을 치기 전에 피해서 칼이

힘껏 휘두르는 주먹의 충격을 안 받았지만, 브라이언의 어깨를 쳐서 브라이언이 뒤로 살짝 밀려서 한 쪽 무릎을 꿇으며 넘어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해일리는 피가 눈에 들어가 눈이 안보였지만 수잔은 모든 것을 목격하고도 그걸 믿을 수 없었다.

“사고가 일어났어.” 라고 수잔이 이후에 말했다. “브라이언에게 뭔가가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칼이 금방 쓰러졌어…”

그 순간 브라이언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피자집이나 드나드는 소년이 아니었다. 숲으로 돌아온 브라이언이었다. 사슴에게서 공격당했던 브라이언이었으며, 날쌔고 집중력이 있고 살아있어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 살아남은 브라이언이었다. 이제 칼이 위협이 되었고, 그를 막아야 하고, 공격받을 대상이었다.

파멸이었다.

브라이언은 용수철처럼 바닥에서 일어났다. 브라이언은 눈으로, 마음으로, 무기나 무거운 것, 그가 사용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찾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포장도로와 벽돌로 된 벽과 유리문만 있었다. 집을게 하나도 없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 몸놀림이 빨라졌다. 브라이언에게는 그 자신이 무기였다. 바로 양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브라이언은 주먹으로 치지는 않았다. 사실상 어떤 것도 주먹으로 치지 않았다. 대신에 손을 펴서 손바닥의 두꺼운 부분으로 찼다. 피해를 심하게 입히지 않는 짧은 타격으로만 계속 손으로 밀면서 쳤다. 하지만 한 번이나 두 번 때리는 것이 아니라 때릴 때 마다 그 힘이 증가되어 마치 뱀이 치는 힘처럼 다시 또 다시 심하게 때렸다.

칼은 축구선수였다. 몸을 부딪치는 것은 축구의 일부였다. 그는 방어와 태클의 충격을 실제로 즐겼다. 하지만… 이것은 미친 것이었다. 사방에서 동시에 맞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브라이언은 칼이 앞을 볼 수 없고 벽에 등을 기대어 비틀거릴 때까지 칼의 눈을 때리고 다시 또 다시 쳤다. 칼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칼은 싸움을 그만두려고 했다.

“그만...”

브라이언에게 칼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 브라이언은 정상적인 규율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 있었다. 칼은 순간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았지만 브라이언은 마음속으로 칼을 끝내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다. 칼이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칼의 배가 무방비상태가 되었다. 브라이언이 배를 공격했는데 칼이 비만이어서 배가 폭신한 것이 좋았다. 목표로 하고 다치게 해야 할 바로 그 곳이었다. 브라이언은 치고 또 다시 쳤다. 여전히 손바닥의 두꺼운 부분을 사용하며 손목을 쭉 펴서 위로 올려쳐서 배 윗부분까지 쳤다. 이 압력으로 칼의 횡격막에서 공기가 빠져나와 칼의 콧구멍에서 나온 바람이 휘파람 소리를 내며 빠졌다.

칼의 손이 배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왔다. 브라이언은 다시 칼의 얼굴을 겨냥해서 눈을 찼고 칼의 눈이 퐁퐁 부어올라 감긴 것처럼 되었고, 칼의 손이 다시 올라올 때까지 일격에 일격을 가했다. 칼이 쭈그리고 앉으며 모든 것을 방어하려 할 때 머리 뒤쪽이 보였다. 브라이언이 칼의 뒷머리에 대고 양손을 모아서 쳤다. 급기야 칼은 바닥에 엎어졌고, 코피가 나고, 그의 폐에서 나오는 숨이 쉹쉹거렸다.

그 짐승은 일어 날 수가 없다고 브라이언은 생각했다. 자신이 얼마나 냉정한가를 뜻밖에 발견했다. 브라이언은 화를 내지는 않았다. ‘난 이 녀석을 일어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그렇지 않으면 일어나서 나를 공격할거야’라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자신이 칼을 그가 아닌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것을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난 짐승을 쓰러뜨려야 해.’

칼은 거의 기절할 지경이 되었지만 아마 축구훈련에서 단련된 힘 같은 것으로 칼을 완전히 쓰러지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만약 칼이 쓰러진다면 더 나올 것이다. 브라이언은 멈출 수가 없었다. 계속해서 칼을 때렸고 조용히 공격했다. 이제 무릎을 굽히고 두 주먹을 모아 마치 나무를 자르듯이 칼의 뒷머리를 다시 또 다시 쳤다.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달려왔고, 브라이언을 뜯어말려 칼에게서 떼어놓았다. 하지만 심지어 사람들이 브라이언을 떼어 놓으려고

할 때조차도 그는 집중하여 칼을 때렸다.

사람들이 잠시 브라이언을 떼어 놓았으나 브라이언은 달아나서 칼을 다시 공격했다. “칼을 일어나게 내버려 두지 않겠어.” 라고 그가 말했다. “난 칼을 쓰러뜨려야만 한다고...”

경찰이 피자 가게로 왔다. 그들은 응급차를 부르고 칼을 병원으로 데려갔으며 병원에서는 칼의 눈 주변의 피부가 복부와 갈비뼈와 마찬가지로 심하게 멍든 것을 발견했다. 칼이 병원에서 몸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하룻밤 입원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렇게 함으로서 다친 상태보다 더 심각하게 다친 것으로 여겨지게 만들었다.

경찰은 브라이언에게 수갑을 채우고 차 뒷좌석에 앉혀서 증인면담을 했다. 수간이 자동차로 왔지만 경찰이 그녀를 잡아당겨 차에서 떼어놓았다.

“아무 말도 마.” 라고 경찰이 수잔에게 말했다. “그 남자애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지만 브라이언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칼이 그 애를 공격했어요. 브라이언은 그저...”

“소년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잠시 후에 경찰이 되돌아와서 수갑을 벗겼지만 브라이언을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브라이언을 차에 태워서 집으로 데려갔다. 그는 어머니가 문을 열었을 때 경찰과 같이 있다는 사실이 불쾌했다. 브라이언의 어머니는 몸이 말랐고, 일하는 옷차림인 부동산 중개인 윗도리를 입고 있었다.

“브라이언? 뭐 땀에...?”

“매키의 피자 가게에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다른 소년을 마구 때렸어요.”

“브라이언? 그게 사실이니?”

브라이언은 아무 말이 없었다.

“브라이언, 그게 사실이냐고?” 그녀는 재차 물었다.



“너 싸웠니?”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브라이언은 자초지종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려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알고 있던 아들이 아닌 다른 아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으며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고 정당방위였다고, 브라이언이 아닌 동물적 본능을 가진 브라이언이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려 했다. 소년동물. 아니 동물소년. 나는 동물소년이야 라고 생각하고 웃지 않으려 애썼다.

“싸움은 정말 확실히 재미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알아요. 싸움이 재미있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저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모르겠어요.”

“너 싸웠니? 경찰이 말한 것처럼?”

브라이언은 순간 생각했다. “저는 반응을 보였을 뿐 이에요. 저를 방어하고 있었어요,”

“그 소년이 의식이 없을 정도로 맞았어요,” 라고 경찰이 말했다. “자신의 이름도 모르던데요.”



“그 애가 나를 공격했어요.”

“우리는 싸움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찰관이 브라이언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분명히 들어서 한 여자애 때문에 싸웠어요.”

“여자애요 ?” 어머니는 브라이언을 바라보았다. “너 여자 친구 있니?”

브라이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예요 그런 게 전혀 아니예요.” 제가 문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칼이 문을 콧 열었고 수잔이 넘어졌고 칼이 나를 찼어요. 저는...”

하지만 경찰은 브라이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설사 들었다 할지라도 사실을 말하자면, 그의 말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경찰들은 결코 브라이언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브라이언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병어리 시늉을 했고 경찰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게 내버려두었다. 브라이언이 이제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무엇

이 일어나야만 했는지, 무엇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으므로 경찰이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하지 않았다.

“제가 상담하시는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은퇴한 경찰이고 소년들을 상담하고 있어요. 제가 그분의 이름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노트를 꺼내어 종이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쓰더니 찢어서 브라이언의 어머니에게 건넸다. “여기 그 분 이름과 전화번호예요. 그 분에게 전화해서 아들이 상담 받게...”

동물 소년이라, 브라이언은 생각했다. 소년이 아니라, 동물소년. 하지만 브라이언은 웃지 않았다.

“아마도 그 분이 브라이언을 계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상담사가 내 진심을 볼 수만 있다면 그렇겠지 라고 브라이언이 생각했다

집에 딸린 사무실 한쪽에 간판이 걸려 있었다.

## 칼럼 랜캐스터

가족상담

들어오세요.

사무실은 차 두 대용 차고 구석에 박혀있는, 방이라고 할 수 없고 사무실이라고도 말할 수는 없는 곳이었다. 이곳에서는 워크숍이 있었던 것 같았다. 브라이언은 문 앞에서 멈췄다. 이 경찰관은 은퇴했고 자신의 낡은 사무실에서 부업으로 소년들을 상담해서 돈을 벌고 있었다. ‘좋아. 다 좋아. 이 사람은 나에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싸우지 말고, 마약도 하지 말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으라고 말 할 거야. 그 사람이 나를 집으로 보낸다. 엄마에게서 수표를 받는다. 엄마가 돈이 없기 때문에 실은 내가 저축 해놓은 돈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좋아.’

브라이언은 그가 돌아온 첫 해에 대해 상담사에게 간단하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정말 잘못되었던 것도 없었다. 축구선수들도 아직 아무도 브라이언을 공격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나중에 숲을 그리워했던 만큼 숲을 그리워하지도 않았었다. 브라이언이 그때를 생각하며 간판을 바라보았다.

순간 돌아가서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머리에 맴돌았다. 이 상담은 아주 멍청한 것이었다. 브라이언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었다. 브라이언은 그를 공격하려 했던 친구에게 응수했다. 조금 심하게 했을 뿐이다. 하지만 막아도 마찬가지 일거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손이 손잡이를 돌리자 문이 열렸다.

“안녕. 네가 브라이언이구나.”

브라이언은 바로 문안에 멈춰 섰다. 그의 시선이 움직이더니 2초 만에 방안에 있는 모든 것을 파악했다. 평범한 흰색 벽들, 방안의 나머지 공간과 어울리지 않

는 몇 개의 싸구려 풍경화들과 어떤 증명서가 들어있는 액자 등이 있었다. 책상은 회청색의 금속으로 된 것이었다. 책상을 마주하고 놓여있는 의자가 한 개 있었다. 낡은 철제 사무실 의자였다. 벽을 따라 있는 한 개의 녹회색 금속책장에는 책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선반이 축 늘어져 있었다. 바닥은 투명한 회색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다.

그 방은 아마 브라이언이 이제까지 본 중에 가장 형편없는 방이었을 것이다. 책상 뒤에는 브라이언이 벽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뚱뚱하지는 않았고 풍성하고, 짙은 검은색 수염을 가지고 있었고 일어서서 환하게 웃으며 브라이언의 손을 잡았다. 브라이언은 거의 뒤로 물러설 뻔 했다. 이 남자는 키가 거의 7피트나 되었다. 그는 그야말로 방을 다 차지했다.

“나는 칼렘이야.”

브라이언이 그 남자의 손을 잡자 칼렘 건너편에 있는 의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자신을 느꼈다.

“아무 의자에라도 앉아라.” 칼렘이 웃었다. “이 의자가 좋겠구나.”

브라이언이 앉아서 기다렸다.

“경찰이 네가 숲에서 살았다고 말하더구나. 한 2년 전에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던 애 말이야.”

브라이언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이니?”

브라이언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고 놀랍게도 칼렘이 맹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

칼렘이 굵고 낮은 목소리로 크게 웃었다. “너도 알고 있었구나.”

“네 죄송해요. 저는 몰랐어요.”

“미안해 할 것 없다. 내가 맹인인 것을 아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다고 우쭐대고 있는 것이야.”

“경찰관이었을 때 맹인이 되었나요?”

그는 다시 한 번 웃었다. “실은 그런 건 아니야. 어느 날 두통이 있었어. 내가 일하고 있었는데 찌르는 듯이 두통이 있었던 거야 그 후 3일 뒤에 눈이 멀었어.”

“그게 다예요?”

“그 뿐이야. 의사들이 맹인이 된 것에 대해 멋진 이름들을 붙였지. 하지만 난 사실을 단순하게 하는 게 좋아. 두통이 있었고 난 눈이 멀게 되었어. 그게 다야. 현대 우리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말이야. 우리 왜 네가 그 축구선수 녀석을 날려버렸는지에 대해 상담하기로 되어 있어.”

브라이언은 몸을 뒤로 젖혔다.

“네가 원한다면.”

브라이언은 숨을 들이쉬었다.

“아니면 우리 다른 것을 이야기 할 수도 있단다.

“제가 그 녀석을 사정없이 때린 게 아니에요.”

“경찰이 그 애를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그 애가 나를 공격했어요.”

“여자애 때문에,” 칼럼이 말했다.

“아니에요. 그럴지도 모르죠. 전 모르겠어요. 그 녀석이 문을 팡하고 열더니 나를 쳤어요.”

“그리고 나서 네가 축구선수 녀석을 다시 공격했지.”

브라이언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 때를 기억해내고 “예” 라고 말했다.

“숲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렴.”

“뭐라고요?”

“숲 말이야. 숲에 대해 말해다오. 나는 도시에서 살아서 숲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몰라. 숲은 어떤 모습이야?”

“저는...” 브라이언이 어깨를 으쓱거렸다. “숲은 좋아요.”

“좋다고? 그게 전부니? 결국 네가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다예요” 라고? 내가

듣기로는 네가 벌레도 먹어야 했고 거의 죽을 뻔 했다고 했는데. 숲은 어떤 모습이니? 진정한 숲의 모습은 어떤 거야?”

브라이언은 잠시 멈추더니 기억했다. 흔들리던 한 가닥의 풀잎과 화살에 맞기도 전에 머리를 돌리던 토끼의 모습,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칠 때 반짝이는 빛깔.

“저는 당신이 이런 것들을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숲에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진정으로 알지 못해요…”

칼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이 없었다. 그런 뒤 부드럽게 말했다. “그럼 하나만 나에게 말해다오.”

“무슨 말씀이세요?”

“한 가지만 내게 말해주렴. 내 마음으로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숲의 한 부분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잖니. 그렇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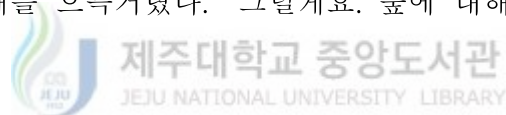
브라이언은 어깨를 으쓱거렸다. “그럴게요. 숲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네가 골라 주렴.”

브라이언은 거의 1분 동안이나 생각했다. 말코손바닥큰사슴 떼들, 황량한 바람, 선의의 죽음, 위기일발의 상황들, 먹이, 하느님 매향, 바로 브라이언이 굶주렸을 때의 먹이, 사냥이 이루어졌을 때 오는 강렬한 쾌감, 숲에 있던 모든 것들, 여름과 겨울에 그에게 있었던 모든 사소한 것들과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냈다. 결국에는 석양에 대해서 칼렘에게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숲에는 많은 모습의 석양이 있었다. 모두가 아름다웠다. 각각이 다른 빛과 다른 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브라이언은 굉장히 좋은 영화 한 편을 본 누군가가 영화의 구석구석을 기억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석양을 기억해냈다.

칼렘에게 설명해 준 것은 겨울에 지는 석양이었다. 나무들이 갈라 터졌던 때는 바람 한 점 없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추위가 계속 되던 날이었다. 하늘은 아주 눈부시게 맑아서 브라이언이 푸른 빛깔을 들여다보았을 때 경계가 없고 끝이



없는 것 같았다. 그 날은 늦은 오후였다. 그의 오두막에서 뜨거운 음식을 먹고 밤에 땀 나무를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태양은 나무 가지 아래에 있었고 아직은 햇살이 있었지만 하늘은 빠르게 암청색으로 변하고 있었다. 브라이언은 찬란한 별 하나를 볼 수 있었다. 어쩌면 행성이었을까? 아마 태양이 사라졌던 곳 근처에 있던 금성일지도 모르는 별이었다. 갑자기 나타난 태양에서 쏘아 올린 황금빛 창 한개, 그 빛이 별을 찌르는 것 같았고 아주 빠르게 사라져서 브라이언은 빛을 놓쳐 버렸다. 황금화살과 같은 빛나는 화살대 한 개가 나타났다. 바라보다가 놀라서 경악하는 동안 사라지고 또 다른 화살대가 오고 그 다음 다른 화살대가 세 번씩이나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태양에서 나온 빛 화살 3개가 이 별을 꿰뚫었다.

그 빛을 보고 자신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있고, 모든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무엇인가가 있으며 세상의 모든 사물보다도 더 위대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고 알게 되었다. 그 빛이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뜻하고 무엇인가로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세 개의 빛 화살. 세 개의 화살. 어쩌면 어떤 이름이 있고 방향을 가리킬 수도 있었다. 나중에 브라이언이 돌아오고 나서 일어났던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북부지역에 살았던 초창기 에스키모족은 오로라를 보고 죽은 아이들의 영혼이 춤추고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읽었다. 브라이언은 그 빛이 이온화하고 있는 전리층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직도 죽은 아이들의 놀고 있는 영혼이라고 믿고 싶었고 그 빛에 더 의미를 두고 싶었으며 석양도 그 빛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석양이 너무 아름다워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는 서있었고, 팔을 벌리고 나무를 껴안았고, 해, 별, 빛이 사라질 때까지 하늘을 바라보았으며 좀 더 의미를 두기 위해서 내내 빛을 보고 싶었다.

그는 석양의 모든 색깔, 모든 형태, 호수의 얼음이 깨지면서 내는 작은 소리, 차가운 하늘이 쉬쉬하며 내는 소리, 쌓인 눈가루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이 모든 것을 칼랩에게 들려주려 애를 썼다.

모든 것을 이야기한 후 브라이언이 책상너머에 있는 칼랩을 바라보았더니 그는 울고 있었다.

“제가 무얼 잘못 이야기 했나요?”

칼랩이 손등으로 그의 두 볼을 닦았다. “아니야. 난 그냥... 감동받아서... 경치가 어떻게 보였을지 생각하니.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것 같아...”

“그래요. 그것이... 그게 전부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그 모든 것을 그리워하는구나.”

그 곳은 탁 트인 숲이었다. 숲을 그리워하는 생각이 경찰이 브라이언을 집으로 데려다 준 이후로 계속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알기 이전에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점점 더 심해졌다. 칼랩도 그것을 알아차렸다.

“네. 정말 가고 싶어요. 저는 그 곳이 그리워요... 저는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피하려는 거야 아니면 가고 싶어서 가는 거야?”

브라이언을 얼굴을 찡그리더니 생각했다. “둘 다 아니에요. 그게 지금의 나예요. 좋든지 싫든지 간에 더 이상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심해져요.”

“사람들이 싫은 거니?”

“아니에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저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저는 친구들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어요. 학교도 가고 평범하게 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게 잘되지 않더군요. 제가 지내면서, 너무 많이 보았어요. 사람들은 내가 관심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아는 것들과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지겹게 생각하죠.”



“석양처럼 ...”

브라이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칼랩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다시 기억해냈다. 그러나 칼랩은 다른 누구보다도 브라이언을 더 잘 “알게” 되었다. “알게 된 것과 다른 것들, 많은 다른 것들을...”

“다른 몇 가지들을 이야기 해 줄 수 있니?”

“석양처럼?”

칼랩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하고 싶으면 원하는 것 아무 거라도 내게 이야기해 주렴.”

다시 브라이언은 잠시 망설이더니 생각했다.

“너무 사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뇨. 그런 게 아니구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는 생각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텔레비전이 존재하지 않는 생생한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만들어요. 내가 진실을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이야기해 보렴.”

브라이언은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요. 쥐들도 집을 가지고 있고 겨울에는 눈 아래 도시를 만들죠.”

“도시를 만든다고?”

“보세요? 당신도 믿지 않죠, 그렇죠?”

칼랩은 고개를 저었다. “내 말은 더 알고 싶다는 거였어. 쥐들에 대해 더 말해다오.”

그래서 브라이언을 말을 했다. 어느 날 브라이언은 눈신발을 신고 개간지 주변을 돌아다니며 사냥을 하고 있었다. 날씨가 추웠지만 가끔씩 찾아왔던 심각한 추위는 아니었고, 브라이언이 개간지 밖을 살펴보고 있을 때 여우 한마리가 높고 힘차게 뛰어 오르더니 머리를 눈 속에 쳐 박고는 병 솔처럼 생긴 꼬리를 치켜올려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전시용 활에 시위를 당

겨야 했다.

여우가 온통 얼굴에 눈을 묻히고 나타나서 사방을 둘러보자, 브라이언은 얼어 붙었고, 여우도 브라이언을 보지 못했으며, 그러더니 여우는 다시 눈을 내려다 보았다. 머리를 위로 쭉긋 세우고 소리를 듣더니 뛰어오르고 다시 공중에 거의 4 피트나 되게 뛰어오르고 다시 거꾸로 눈 속에 뛰어들었다.

이번에는 꿈틀거리고 있는 쥐 한 마리를 물고 나왔다. 여우가 단번에 물어뜯더니 죽여 버렸다. 쥐를 삼키더니 다시 귀를 기울이고, 공중에 또 뛰어올랐고 다른 쥐를 물고 나왔다.

여우는 여덟 번 이상을 뛰어오르더니 쥐들이 개간지에서 종종 걸어 나가기 전에 세 마리 이상 쥐를 잡았다. 브라이언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서는 잠시 쥐를 먹는 것에 대하여 의아해했지만 그게 더 나은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브라이언은 까다로운 사람은 아니고 해서 지금까지 사슴 고기를 먹었고 많은 고기와 다른 것도 먹었다. 아마 쥐로 식사를 만들려면 쥐 30마리나 40 마리를 가져와야 할 것이고 쥐들을 다듬어야 하는데 한 마리씩 내장을 제거하고 껍질을 벗겨야 하는 많은 수고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여전히, 브라이언은 궁금했다. 쥐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생각하기로는 쥐들이 겨울잠을 잘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런데 여우들이 쥐를 잡으려고 나타난 곳에 쥐들이 와서 서성대고 있다. 확실히 쥐들은 겨울잠을 자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브라이언은 개간지로 옮겨서 눈을 바라보았고, 여우가 행동했던 것처럼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는 눈신발을 벗고 한 짝을 삼으로 사용해서, 조심스럽게 눈을 파냈더니 풀 아래에 닿았다. 여기가 브라이언이 진실을 발견한 곳, 바로 쥐들이 도시를 만든 곳이었다.

겨울이 왔을 때 풀은 길게 자라있었다. 눈이 풀 위에 내리자 풀이 구부러져 눈이 침투할 수 없을 만큼 두껍고 초가지붕 같은 눈 지붕이 만들어져 있었다. 쥐들이 살았던 이 지붕아래였다.

브라이언은 좀 더 눈을 치웠고 눈 아래 작은 집들과 아늑한 풀로 만들어진

방에서 풀 아래에 작은 다른 방들로 난 작고 둥근 터널을 발견했다.

풀 그 자체로는 따뜻하지는 않으나 지붕 위에 2피트나 쌓인 눈은 놀라운 절연체가 되어 방을 건조하고 아늑하게 보이게 했다. 브라이언이 배를 대고 누워 터널중의 하나를 내려다보았을 때 빛이 눈을 뚫고 스며드는 것을 보았고 브라이언이 지켜보자 야생 쥐 한마리가 구석주변에 와서 브라이언을 보았다. 쥐는 놀라서 방향을 돌려 뛰어 돌아갔다. 10분 동안 다섯 마리 이상의 쥐들이 터널 아래로 와서 집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는 뛰어 돌아갔다.

브라이언이 쳐다보았을 때 한 도시전체, 하나의 쥐 도시가 거기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곳에 수백 마리의 쥐들이, 완벽하게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보호되고, 겨울에 아늑한 풀 터널 아래 방안에 있었음이 틀림이 없었다. 여우는 쥐들이 거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터널 속을 통과하는 쥐의 움직임을 여우의 큰 귀로 들을 때 까지 귀를 기울였다. 그런 다음 여우는 공중에 뛰어오르고 쥐를 잡으려고 황급히 덤벼들며 눈과 풀을 통과하여 뛰어다녔다. “여우가 항상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브라이언이 칼럼에게 말하고, 이야기를 마쳤다. 브라이언이 보고 싶어 했던 수백 마리의 쥐들이 아마도 그 곳 아래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쥐들은 무사했다. 쥐들이 나를 어리석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나는 내 방을 따뜻하게 하려 노력했고, 살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했다. 쥐들은 이런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누군가 다른 사람도 이것을 알고 있니?”

“저는 이것을 책에서나 어디에서도 본적이 없어요. 내가 쥐들에 대해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아요.”

“나는 너를 믿어.”

“음, 거의 아무도 안 믿어요.”

“좀 더 말해다오.”

“쥐에 대해서요?”

“숲에 대해서. 몇 시지?”

“세 시요.”

“아. 3시 30분에 다른 약속이 있어.”

“내일 다시 와서 내게 이야기 해 주는 게 어떠니?”

“상담가로서요?”

“아냐,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없다고요?”

“전혀 없지. 너는 싸움에서 다만 너 자신을 방어하고 있었어, 그것은 네가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 나는 북부 숲에 관해 더 듣고 싶을 뿐이야. 네가 오고 싶지 않으면 올 필요는 없어 그리고 너의 어머니께 비용은 없다고 말해 주렴. 너는 아주 실감나게 말하는구나. 난 더 듣고 싶단다.”

“좋아요.” 브라이언이 일어났다. “내일 다시 와주면 기쁠 거야.”

그리고 브라이언이 문으로 걸어갔을 때 자신이 오겠다고 말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처음에는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았으며 브라이언이 후에 되돌아보건대 삶이 진 행되었던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의아스럽게 생각했다. 수업을 두 달 남겨놓은 봄 이었다. 모두가 싸움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므로 브라이언에게는 학교생활이 힘들 었다. 어떤 애들은 브라이언이 영웅이라고 하고, 어떤 애들은 미쳤다고 생각했으 며, 대부분의 애들은 브라이언을 멀리 했다. 그는 가끔씩 복도에서 칼 레머즈와 마주쳤는데 레머즈는 교묘히 브라이언을 피했다.

수잔은 브라이언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녀에게 꼭 맞는 적합한 이상형 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가능한 한 언제든지 브라이언 가까이 있고, 언제든지 같이 걷고, 언제든지 이야기하려고 애를 썼다. 브라이언은 수잔이 좋은 사람이라 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많은 애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모든 클럽의 회원으로 활 동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브라이언에게 자신에 대해서 말하게 하도록 애쓰고 있었다. 결국 그는 가능하면 예의바르게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지만 건방 지다고 소문이 나면서 곧 수잔과 모든 친구들은 그를 혼자 내버려 두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지만, 이상하게 혼자 있다 보니 브라이언을 더 우울하 게 했고 수업에 가는 것이 더 어렵게 되었다. 학교가 싫어지기 시작했고 오로지 습관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학교에 갔고 이상하게 성적은 올랐다. 몇 달 후 그 는 칼렙과 숲으로 돌아가는 꿈이 없으면 미쳐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깨어 있을 때에도 꿈을 꿔다. 학교에서, 어머니와 같이 집에서, 조용하거나 혹은 지루 한 순간이 있을 때마다 따분해지더니 숲으로 돌아가는 꿈이 생각났다.

준비하는 꿈이었다. 언제나 준비하고 있는 꿈. 돌아 갈 준비, 갈 준비를 하는 꿈이었다. 집. 나의 집인 숲으로 가서 찾는... 그게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자신을 찾기 위해서 자신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였다. 어떤 때의 꿈은 자신이 가지고 가야 할 것에 대한 것이었다. 무기 종류는 언제나 활이었다. 절대 좋은

아니고, 화살 종류, 낚시장비, 옷 등이었다. 단지 돌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생존하기 위한 것도 아닌, 살기 위한 것이고 브라이언이 살았던 곳에서 행복하기 위해 가지고 가야 할 것들이다. 그뿐이다. 적절한 종류의 장비들, 브라이언의 카누, 수십 개의 질 좋은 화살들과 질 좋은 활 한 개. 질 좋은 눈신발 한 켤레. 약간의 낚시 바늘과 낚시 줄. 좋은 침낭. 안식처를 만들기 위한 방수시트. 텐트 한 개. 요리냄비 한 개. 아니 두 개 중 하나는 큰 것, 하나는 중간크기. 가을 겨울에 입을 옷가지. 좋은 장화, 모카신.

마음속으로 품목을 끝없이 생각했고 목록을 개선하고, 바꾸기도 하면서 마침내, 목록에 적었다. 가는 곳 어디에서든지 공책에 옮겨 적었고, 생각날 때면 바꾸기도 하고, 품목의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적었다.

그는 실로 사소한 것에 신경을 썼고, 한 번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신형 화살촉을 세 개의 날이 있는 구형 수렵용 화살촉으로 바꾸려고 했다. 구형은 세 개의 날이 있는 군 배급 형으로 날을 날카롭게 갈아야 하지만 아주 강해서 날이 상하지 않고 바위를 깰 수가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사소한 것을 따지는 것은 너무 까다롭게 구는 것이었다. 결국 브라이언은 분별력을 가지고 삶을 준비했다. 마침내 목록은 꿈이 현실로 되는 어떤 안내서였지만 목록이 완성되자 목록에 있는 품목을 모으기 시작했고 사냥과 낚시잡지 뒷면에 있는 카탈로그에서 주문을 했다. 어머니는 브라이언이 주문하는 것을 알고 일부 준비품목에 관여를 했지만 대부분은 브라이언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고 주문한 품목을 받고 방안에 물건들을 놓았을 때 어머니는 그에게 묻지 않았다.

처음으로 온 것은 한 개의 활이었다. 너무 복잡한 것을 원하지 않았고 컴파운드(혼합형) 활에서 바퀴와 도르래를 떼어내기를 원하지도 않았다. 컴파운드 활은 더 정확하고, 아마도, 더 당기기가 쉽지만 잘못 다루면 부러지기 쉬운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 대신에 블레이크리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좀 더 짧은 리커어브드<sup>1)</sup> 활을 만든 사람이다. 그가 소형대궁이라고 부르는 이 활을 주문했다. 진짜 대궁은 좋았지만 너무 길었다. 이름에서 느껴지는 대로, 사용해보니 나뭇가지에 걸렸

1) 역자 주: 활의 날개 아래 부분이 구부러져 있어서 화살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함.

고 사용하기가 힘들었다. 길이 26인치에 강도45파운드 되는 더 짧은형을 주문했다, 활을 당기는 강도무게는 확실히 하지 않았다. 하지만 원하는 크기와 일반 사냥용으로 사용하기에 맞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블레이크리는 활의 강도를 낮추라고 말했다. 블레이크리는 120파운드까지 강도를 높여서 활을 만들었지만 그런 활들은 잔인하다며 “만약 화살촉이 날카롭다면 단단한 활과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활도 뚫고 들어 갈 겁니다.” 라고 편지에 썼다.

활은 아름다웠고 앞뒤에 유리섬유로 된 가늘고 긴 조각을 여러 겹으로 붙여진 흑단목재와 자단목재를 혼합해서 만든 아름다운 것이었다. 블레이크리는 네 개의 화살 줄을 여분으로 보냈다. 클레이는 화살도 팔았고 해서 브라이언 자신의 화살을 만들려면 필요한 100 개의 포트 오포우드 산 삼나무 화살대와 모든 도구들, 프리켓(화살에 붙어 있는 3개의 깃 중 하나)깃들과 활고자들도 샀다. 블레이크리는 또한 활에 사용할 50개의 살상력이 큰 MA-3s 수렵용 화살촉과 사냥용 화살촉도 같이 보냈다. 그래서 브라이언은 MA-3s 수렵용 화살촉을 사용하지 않고도 연습할 수 있었다. 전에는 결코 활을 만든 적이 없었다. 하지만 장비와 동봉된 전체 지침서가 있어서 활을 만들기가 쉽다는 것을 알았다. 원예용품점에 가서 가정용 건초더미를 샀다. 뒷마당에 세워놓고 앞에 표적 판을 세웠다. 여섯 개의 활이 완성되자 매일 활쏘기 연습을 시작했다.

활쏘기 연습을 한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브라이언은 가공되지 않은 화살과 불로 단단하게 한 화살촉으로 만든 무기를 사용하곤 했으며 화살촉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놀랐다. 그 활은 매끄럽고, 깔끔하고, 소리도 나지 않았으며 화살들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날아갔다. 첫째 날에 브라이언은 다른 화살들로 판지 표적 판 중앙에 명중시켰던 곳에 여러 번 쏘았다.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 블레이크리가 넣어 보내준 간단한 가죽고리 끈을 사용했는데 첫날에 200번이나 쏘았음이 틀림없었다. 조준기를 사용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숲에서 전쟁용 화살로 했던 것처럼 화살이 어디로 갈 것인지 마음과 눈이 느끼는 대로 쏘았더니 일주일 이내에 20야드에서 판지 표적 판에 시종일관 6인치 원을 쏠 수 있었다.

목록의 한 부분일 뿐인 활과 화살은 이주일 반이 걸렸는데 배에 실어서 오는

시간은 계산하지 않은 것이었다. 활쏘기 연습은 일거리를 주었고 브라이언을 활기차게 만들었다.

목욕과 연습 외에 칼랩이 있었다. 일주일에 5일 동안은 수업을 마친 후 칼랩의 집으로 갔다. 어머니는 청구서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의아해했지만 상담 때문에 가는 것으로 생각했다. 어떤 면에서는 상담 때문에 가는 것이 사실이었다. 상담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일이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도움을 받는 것인데 지금 칼랩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브라이언은 숲에서 지낸 생활에 대하여 칼랩에게 이야기했고 비록 칼랩은 거의 말을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브라이언이 자신을 이해하고, 일어나고 있었던 일, 일어날 예정이었던 일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칼랩은 차 한 잔을 만들었는데, 대단한 것은 아니었고 그냥 뜨거운 물과 약간의 크림과 설탕을 곁들여 차 봉지를 넣은 차였고 브라이언이 칼랩의 집에 갔을 때는 미리 준비해 놓은 컵이 있었다. 브라이언은 차를 대단하게 생각한 적은 없지만 상담하는 동안 칼랩이 차에 설탕을 넣고 한 모금 마시는 것을 보고 웬지 차는 언제나 칼랩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사소한 이런 생각이 들고 난 후에 차를 숲에 가기 위한 목록에 넣었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브라이언은 철제의자에 앉아서 차를 마실 것이며 칼랩을 쳐다보고 말한다. 오늘은 무엇에 대하여 듣고 싶은 신가요? 나는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모르겠구나. 네가 골라주렴.’

‘브라이언은 잠시 생각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사슴이나 낚시, 물위에 태양, 비버가 집을 짓는 방법이나 밤에 외롭게 우는 아비 새의 울음소리나 달에게 노래하고 있는 한 마리 늑대가 위를 조이는 듯이 울부짖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고, 칼랩은 시선을 떨구고, 조용히 듣고 있고, 가끔씩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가끔씩 놀라기도 하고, 가끔씩 슬퍼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더니 학교생활이 거의 끝나는 날이 다가왔다. 브라이언이 목록에 있는 모든 물품을 받자 칼랩은 한숨을 쉬고 말했다, “네가 바라는 것을 찾기 위해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브라이언이 그 말에 동의했다. 둘은 브라이언이 돌아가는 것과 브라이언을 끌어당겼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는지에 대한 것과 그를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 “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을 알아내는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브라이언이 말했다.

“내가 도와 줄 거야.”

“당신이에요?”

칼럼은 어깨를 으쓱거렸다. “내가 너의 마음의 건강을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되어 있잖아, 그렇지? 음, 건강한 마음으로 숲에 돌아가서 남기고 온 것을 찾는 것이 분명해.”

“그게 맞아요.”

“너를 구해준 크리 가족은 어때니?”

“그 뒷 놓는 사람들이요?”

“스몰혼즈가족.” 브라이언은 자주 그들을 생각했다.

“그 사람들이 왜요?”



“그들은 네가 다시 와서 그들을 방문하기를 바리지 않았니?”

브라이언이 쳐다보았다. “물론이죠. 좋아요.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처음은 쉽지 않았다. 부모님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브라이언은 틀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오지에 대해 지독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전에 브라이언이 실종되었을 때 몇 주 후에는 이 불안감이 더 심해지더니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가 되었었다. 어머니는 아들과 여러 날 밤 대화를 나눈 뒤에야 마음이 풀렸다. 브라이언이 이제 나이가 더 들고 더 적응이 되었다는 것을 어머니도 알았다. 브라이언이 데릭과 돌아왔을 때 지난여름을 무사히 보냈구나 생각했었다. 칼렙의 도움으로 어머니는 안정을 찾았다.

“어떻게 스몰혼즈가족을 찾을 거니?” 어머니가 물었다. “저를 데려다 준 조종사가 스몰혼즈가족이 어디 있는 지 알 거예요.”

브라이언은 조종사의 명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 조종사는 미네소타와 캐나다 국경지역에 인터네셔널 폴즈 시에서 한 대의 비행기를 운항하는 사람이었는데 브라이언이 그에게 전화를 했다.

“스몰혼즈가족? 아 - 윌리엄즈 호수 지역의 낚시캠프 위에 있지. 하지만 가을까지는 그 곳에 가지 않을 예정이야. 여름 내내 바다낚시로 예약이 꽉 차있어. 너를 그 곳에 잠깐이나마 데려다 줄 시간이 없어.”

“저를 근처 가까운 곳에라도 데려다 주면 어떨까요? 카누로 제가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잠깐 기다려 봐.” 브라이언은 조종사가 자신의 비행예정기록을 훑어볼 때 서류 뒤적이는 소리를 들었다. “아, 여기 있네. 열흘 동안 낚시하고 있는 두 명의 남자들을 데리러 가기로 되어 있어. 우리는 그레나이트 호수지역으로 갈 예정이고, 남아 있는 연료로 아마 너를 백마일 더 데려다 줄 수 있을 거야. 거기서 스몰혼즈 가족이 머무는 캠프까지는 백마일 좀 안 되는 거리야. 거기까지 가는데 호수가 쇠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있어서, 육로 수송이 정말 나쁘지만 않으면 넌

무사히 갈 수 있어. 내가 좋은 지도를 줄 거야. 장비무게는 얼마나 되니?”

“저와 카누 한 개를 합하면 아마 200 파운드는 될 거예요. 카누를 운반 할 수 있나요?”

“그래. 플로트<sup>2)</sup>에 실으면 되지. 우리는 카누 한 대 싣고 갈 것이고 내가 너의 카누를 다른 플로트에 실어 줄 수 있어. 언제 떠날 예정이니?”

“확실한 날짜는 정하지 않았어요.”

“가을에 댕 놓을 시기 전에 또 기상이 악화되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물품을 갖다 주러 한 번 날아가기로 되어 있어. 그때 오면 좋겠다.”

“네.”

“좋아 너는 인터내셔널 폴즈로 오면 돼. 나는 거기서 널 만날 거야.”

브라이언은 어머니에게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지 않은 것뿐이지 정말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들이 내내 비행기로 목적지까지 간다고 생각했고 브라이언은 어머니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다. “여행”에 대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려고 전화를 걸었을 때 아들이 마지막 백 마일을 카누로 이동하려는 계획이 아버지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아버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또한 작년에 변화가 있었는데, 서먹한 사이가 되었다가 동시에 더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었다. 아버지는 아들을 더 이상 소년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 같았고 브라이언을 알아보는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지금은 좀 더 동등한 인격체로 브라이언을 대했다.

“잘 됐구나.” 아버지가 말했다. “이 여행이 너에게 이로울 수도 있겠다. 멋진 시간을 가지게 될 거야.”

카누가 문제였다. 카누를 운송하는데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했고 미니애폴리스 노스에서 카누를 트럭으로 보내야만 했다. 항공사들은 모든 예약들을 관리했다. 브라이언이 인터내셔널 폴즈에 도착했을 때 카누가 도착하도록 카누를 미리 보내야 했다. 브라이언이 가져가지 않고 카누를 보내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카누에 문제가 생기기 않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항공사는 언제쯤 카누가 인터내셔

2) 역자 주: 오지 전용 비행기나 수상비행기의 다리에 바퀴 대신 달린 넓은 판, 짐을 싣는데 사용됨.

널 폴즈에 안전하게 도착하는지를 알려주려고 전화해서 브라이언이 비행기를 타기 꼬박 4일전이라고 말했다.

브라이언은 나머지 장비들은 활과 화살들을 제외하고는 2개의 등산용 배낭에 넣었다. 두꺼운 종이 통에 넣어 비행기에 실린 활과 배낭과 같이 상자 안에 들어 있는 화살들도 점검했다.

바람막이 방한점퍼 하나 폴리스로 된 폴라 스웨터 두 벌을 제외하고 겨울과 혹한용 장비는 가져가지 않았다. 이유는 확실히 모르겠다. 집 주위를 돌아보거나 마을을 지나가거나 학교에 있었을 때에도 마음속에 돌아온다는 생각은 없었다. 아마도 생각은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브라이언이 텔레비전에 흥미를 잃게 되면서 역사책을 더 많이 읽기 시작했고 더 공부해서 과거에는 브라이언 또래, 거의 16세 정도의 젊은이들이 나가서 자신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았다. 미국남북전쟁에서는 16세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죽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브라이언은 17세에 군대에 입대할 수 있었다. 좋은 삶, 자신의 삶을 시작했고 돌아온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며 아직 겨울장비를 가져가지 않았다.

“공간이 부족해서 그래, 나중에 장비를 가져 갈 수도 있어. 충분한 공간이 없었을 뿐이야.” 라고 브라이언이 혼잣말을 했다.

떠나기 마지막 두 주일 동안 여행사에 전화를 하고, 모두에게 자신은 괜찮을 거라며 확신시키며, 목록에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짐을 싸고, 칼럼을 찾아가는 일로 바빴다.

그러더니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었고 작별인사를 하려고 칼럼을 찾아갔다.

“편지 쓸 거지?” 칼럼이 말했다.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꼭 쓰라고 당부하는 말이었다.

“네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고 싶어질 거야.”

브라이언이 고개를 끄덕였다. “ 나가는 우편편이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요.”

“가을에, 물품을 갖다 주는 비행기 편이 있을 거라고 네가 나에게 말했잖아. 그 때 편지를 보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요. 약속해요.”

“저, 그럼...”

브라이언이 일어섰고 서로 악수를 하기 시작했다. 칼랩이 책상주위를 돌아서 나오더니 브라이언을 힘껏 껴안았다. 브라이언의 발이 들려질 정도였다.

“편지 쓸게요.” 브라이언이 놓어나자 약속했다.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해다오.” 칼랩이 말했다. “빛과 색깔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다오. 모든 것들을...”

“그럴 게요.” 브라이언이 잠시 멈추어 섰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칼랩이 미소 지었다. “넌 이미 감사의 말을 했어. 꼭 편지해.”

어머니가 브라이언을 공항에 차로 데려다 주고 모든 장비를 옮기는 것을 도와주셨다. 어머니는 탑승 수속 접수대에서 그녀의 손을 여러 개의 배낭 중 하나에 얹고 있었다. 브라이언이 어머니를 바라보았더니 그녀는 울고 있었다.

“저는 괜찮을 거예요. 엄마.”

“그래. 난 모든 게 시작되었던 것들을 생각해 볼 뿐이야. 소형비행기와 내가 너에게 준 손도끼. 이 모든 게 아주 오래 전에 일 같아. 하지만 2년 밖에 안 되었어.”

그렇지 않아요, 브라이언은 어머니를 껴안고는 생각했다. 2년 보다 더 되었어요. 아주 오래 전이죠.

“너도 인제 철이 들었구나. 너의 아버지와 나는 지난주에 그 점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너의 이런 모습을 보니 떠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단다. 네가 꼬마였을 때를 생각해 보았단다.”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나는 네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브라이언은 할 말이 없었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브라이언의 어머니이고 그는 어머니를 사랑했다. 그는 또한 아버지도 사랑했지만 이 일을 해야만 했다. 아니면 무엇을 할지 몰랐다. ‘미쳐보자. 항상 옳은 것만 하지 말자. 안

그러면 그는 죽을 것 같았다.’

“편지 써서 오지 전용 비행기 편으로 보낼게요.”

“그게 좋겠구나.”

어머니는 출구 앞에서 브라이언과 함께 있으면서 사소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간혹 브라이언을 쓰다듬기도 하며 다시 탑승 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더니 브라이언이 비행기 탑승 통로로 내려가자 손을 흔들었다.

브라이언은 미니아폴리스로 가서 인터내셔널 폴즈 행 정기왕복비행기로 갈아탔다. 오후 3시에 도착해서 공항에 기다리고 있는 카누와 노를 찾았다. 오지비행사에게 전화를 했는데 비행사는 첫 번째 벨이 울리자 바로 전화를 받았으며 레이니어에 있는 가게 옆 부두에 장비를 갖다 놓으라고 했다. 레이니어는 인터내셔널 폴즈 근처 레이니 호수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이다.

브라이언은 모든 장비를 가지고 부두까지 택시를 탔다. 운전기사는 택시지붕 받침대에 장비를 올리고 밧줄로 묶고는 바운더리 워터스 카누 구역으로 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장비들을 항상 이렇게 묶는다고 말했다. 브라이언은 부두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시간이 지나자 쌍 플로트가 달린 오지 전용 비행기가 한 바퀴 돌더니 착륙해서 속력을 낮추어 천천히 부두에 세웠다.

“안녕, 브라이언!” 비행사는 뛰어내려서 선창에 비행기를 밧줄로 묶었다.” 다시 만나서 반가워. 뒷좌석에 장비를 넣거나 하렴. 우리가 카누를 플로트에 달아서 묶을 거야. 1분도 안 걸려.”

5분 후에 그들은 부두에서 멀어져 천천히 날고 있었다. 비행사는 속도를 낮추어서 호수 아래로 내려가 4분의 1마일을 움직여서 다른 부두 가까이에 있는 작은 건물로 향했다.

“내 오두막이야.” 비행사는 턱으로 판자 집을 가리켰다. “난 네가 택시로 저기 오두막까지 가게 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택시들은 그곳으로 가는 길을 좋아하지 않아. 숲을 2마일 지나야 하고 대부분 길이 진흙탕이야. 식량은 가져왔니?”

브라이언은 오두막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뭐라고 하셨어요? 식량은 가져왔냐고? 실은 낚시꾼 두 명이 아침 일찍 올 거야. 내가 집에 가 있는 동안 너는 밤에 여기 오두막에서 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에는 먹을 게 없어. 필요하다면 내가 저기 있는 내 지프차로 달려가서 먹을 것을 좀 가져올 수 있어.”

“비행기에서 먹었어요.” 브라이언이 말했다. “그리고 배낭에 먹을 게 좀 있어요. 전 괜찮아요.”

“됐구나.” 비행사는 비행기를 조심스럽게 부두에 대고 나서 플로트 위로 올라가 비행기를 묶었다. “우리는 아침 일찍 돌아 올 거야. 동이 트고 30분 뒤 이곳을 떠날 계획이다. 4시 30 분경이야. 그때 보자.” 라며 가버렸다.

브라이언은 홀로 선창에 서서 호숫가를 바라보았다. 그 곳은 숲이 아니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여기저기에 오두막집이 있고 부두에는 작은 배들이 나란히 매어 있었다. 하지만 그 곳에 무성한 나무들과 새소리와 녹음이 있었다. 매향, 북부의 숲이 여름에는 얼마나 푸르렀는지 잊어 버렸다. 브라이언은 조용한 가운데 주위 소리들이 담요처럼 브라이언을 감싸도록 내버려 두었다. 약 5분 정도 휴식을 취하며 거기에 서있었다.

저녁 무렵이었다. 의도적으로 손목시계나 벽시계를 가져오지 않았다. 시계는 브라이언이 갈 곳과는 맞지 않았다. 조종사에게 정직하게 다 이야기 하지는 않았다. 비행기에서 작은 샌드위치와 약간의 땅콩을 먹고 콜라도 마셨지만 식량은 가져오지 않았다. 대신에 식량을 얻기 위한 능력은 가졌다.

브라이언은 비행기에서 침낭이 있는 배낭을 꺼내 가지고 작은 건물로 향했다. 배낭은 열려 있었고 안에는 낡은 엔진부품과 낚시 도구로 꽂 차 있었다. 한 쪽 구석에는 긴 의자가 하나 있었는데 브라이언은 의자에 누워서 잘까 생각했다. 하지만 하늘을 보니 비가 올 것 같지는 않았고 구석에 있는 페인트 통에서 나는 악취가 브라이언의 코를 찔렀기 때문에 브라이언은 오두막에서 나와서 자려고 생각했다.

배낭의 한쪽 주머니에는 여러 개의 낚시 줄이 감긴 두루마리들, 작은 봉들과 낚시 바늘을 넣은 한 개의 플라스틱 통이 있었다. 비행기 플로트에서 내릴 때 부두 옆에서 많은 작은 민물고기를 보았는데 파랑볼우럭들과 개복치였다. 낚시 바늘과 봉들을 낚시 줄에 매달았다. 그런 다음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썩은 통나무 하나를 뒤집고는 지렁이 여섯 마리를 잡았다.

물고기도 굶었던지, 브라이언은 10분 만에 5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 브라이



언은 낚시 줄을 당겨서 낚싯대에 감고는 가방에 다시 넣었다. 그 다음에 물고기를 깨끗이 다듬고 머리를 붙은 채로 놔두고, 가지고 온 칼등으로 불고기의 비늘을 벗기고는 더 작은 냄비에 물고기를 던져 넣었다. 물가는 유목으로 덮여있었는데, 순간 모래해변의 작은 모래위에 물 가장자리 근처 굴러다니고 있는 요리용 스토브를 보았다. 호수에 있는 물을 떠서 냄비에 넣고 뚜껑을 탁 닫고는 바로 불을 붙였다. 모기들이 브라이언을 발견하고 저녁 먹잇감으로 생각했지만 브라이언은 푸른 풀이나 잎들을 불 위에 던져서 불에서 나오는 연기가 모기들을 쫓아내게 했다. 앉아서 호수너머 그의 왼쪽으로 지는 저녁 해를 바라보며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제대로 느꼈는가 하고 생각했다.

한번은, 더 이상 집에 있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한 밤중에 브라이언은 침대 이불을 걷어 제치고 뒷마당으로 가서 땅위에 누웠다. 창문도 열지 않고 방에서 견디는 것 보다 훨씬 나았다. 바깥의 일부분을 느껴 보기 위해서는 피부에 공기를 촉감으로 느껴야만 했었다. 누웠던 그 날 밤에는 하늘을 향해, 별을 향해 올려다보려고 애를 썼다. 너무나 많은 도시 불빛이 있었다. 하지만 마당에 있는 공기도 숲에 있는 공기와 정말 같다고 느끼는 척 애를 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숲에서 보는 빛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보려 애를 썼다.

이제 브라이언은 침낭을 호수 기슭 풀밭 위에 펼치고 그 위에 누웠다. 해가 질 무렵이었다. 브라이언은 저녁별을 알아볼 수 있게 되자 사람들이 어떻게 별에게 소원을 빌었을까를 생각했다. 브라이언은 소원을 빌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음날에도 다음날, 그 다음날에도 언제나 별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 수 있게 되었다.

브라이언은 자신이 끓인 생선 스프 냄새를 맡았다. 스프가 거의 끓어서 가져온 소금 약간을 비닐봉지에서 꺼내어 넣고 조금 식히기 위해 화로에서 내려놓았다.

10분 후에 브라이언은 뚜껑을 열고 칼끝과 숟가락 하나를 사용하여 생선 껍질을 벗겨가며 등뼈를 따라 분홍빛의 연한 고기를 먹었다.

브라이언은 빠르고, 조심스럽게 뼈를 발라가며 생선을 먹고, 스프도 마셨다.

호수에서 냄비를 깨끗이 씻고는 밤벌레를 피하기 위해 텐트를 세우기로 했다. 브라이언은 작은 2인용 텐트를 가져왔다. 처음에는 텐트를 하나도 가져오지 않으려 했지만 숲을 좋아하든 안하든 텐트는 아주 가볍고 입구도 있고 끄직한 벌레들도 막아 주어서 가져왔다. 텐트를 설치하는데 5분이 걸렸다. 가방을 텐트 안에 넣고 바로 잠자리에 드는 대신에 유목을 불 위에 더 넣고 잠시 동안 어둠속에 앉았다.

지금 거의 다 왔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매우 가깝다. 내일은 비행기가 브라이언을 북동쪽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브라이언은 미소 지었다.

브라이언은 텐트를 열고 안으로 기어들어가서 침낭 위에 누웠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5분 이내에 깊은 잠에 빠졌다.

브라이언은 깨어나서 잠시 동안 그가 있던 곳을 기억할 수가 없었다.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곰이 내는 소리라고 생각하며 텐트 옆 땅에 그의 배낭을 두고 온 일이 얼마나 멍청한 것이었는지 생각했다. 밖을 내다보았을 때 곰 한 마리가 아닌 스컹크 한 마리가 있었다. 배낭 가까이에 있는 게 아니라 타고 남은 모닥불 주변에서 냄새를 맡고 있었다.

생선 찌꺼기들. 스프를 다 먹고 나자 생선 껍질이나 머리, 뼈들을 모닥불위에 버려서 태웠다. 냄새가 호수 아래로 퍼졌음이 틀림이 없었다. 반달이 떠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는 데 충분한 빛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보려고 일어났는데 그 움직임이 스컹크를 놀라게 했고 스컹크는 즉시 꼬리를 쳐 들고 6피트 밖에서 브라이언을 겨냥했지만 냄새를 뿜어내지는 않았다.

브라이언은 매우 조용히 앉았고 스컹크는 경계하는 몸짓을 보이는 것 같더니 꼬리를 내리고 다시 화로 주변을 기웃거렸다. 아무 것도 찾지 못하자 스컹크는 한 번 더 가려진 텐트를 쳐다보았고, 콧김을 뿜고는 어둠속으로 비척비척 걸어갔다.

브라이언은 스컹크가 떠나가는 것을 쳐다보면서 미소 지었다. 암컷인지 아닌지 몰랐다. 하지만 그 모습이 암컷이라고 생각은 했다. 왜냐하면 브라이언이 가깝게 알고 있었던, 유일하게 브라이언을 받아들인 스컹크가 암컷이었기 때문이다. 그 스컹크는 브라이언에게로 옮겨와 북부에서 겨울을 같이 지냈는데 브라이언을 곰에게서 구해 준 적이 있어서 언제나 스컹크들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동녘 하늘이 희미하게 밝았다. 브라이언은 일어나려고 마음먹고 준비를 했다. 조종사는 해 뜬 후 30분이라고 말했고 한 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올 것이라고 했다.

브라이언은 작은 모닥불을 피우고 약간의 물을 끓이려고 모닥불 위에 얹고는

차를 조금 넣었다. 차가 뜨거워지고 끓는 동안 침낭을 돌돌 말고 텐트를 내리고 다시 짐을 꾸렸다.

잠시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모닥불을 바라보다가 다시 시장기를 느꼈다. 물고기와 스프를 먹어서 배가 불렀지만 오래 가지 않았다. 떠날 시간이 다 되어서 낚시하거나 요리할 시간이 없었다. 배고픔은 오랜 친구가 되었다. 한 때는 적이 되었었다. 아주 배고픔이 극에 달할 때마다 공황상태에 빠졌었다. 허나 지금은 바로 먹지 않거나 심지어 오늘 먹지 않거나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마음으로 그의 허리띠를 졸라맸다.

그 외에, 약간의 각설탕을 가지고 있었다. 브라이언은 차가 충분히 식자마자 각 설탕 3개를 넣고 냄비에서 차를 따라 마시자 배고픔이 없어졌다.

빈 냄비를 사용해서 모닥불위에 물을 부어 불을 완전히 꺾고 재를 저어서 녹게 했다. 그런 다음 자신의 배낭과 비행기에 실을 침낭을 가지고 부두에 앉아서 기다렸다.

근처 어디에선가 아비 새가 아침을 알렸고 호수를 가로질러 부드럽게 퍼지는 아비 새의 소리는 잠깐 동안 마치 브라이언이 절대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익숙한 소리 같았다. 마치 지난 2년과 그 이상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었고 브라이언이 계속 숲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았다.

이 소리는 브라이언이 한 대의 모터 소리를 들을 때까지 지속되었다. 오두막으로 바퀴를 덜컹거리며 내려오고 있는 낡은 지프 체로키를 올려다보았다. 지프 지붕에는 카누가 한 대 있었고 안에는 조종사와 두 남자가 타고 있었다.

브라이언은 일어서서 지프가 주차될 동안 기다렸다. 그들 세 사람이 나가더니 카누를 내리고 선창으로 옮겼다.

브라이언은 어부를 만나는 것을 불쾌해하고 있었다. 브라이언이 읽은 모든 잡지들이나 일부 그가 본 텔레비전에 나온 소위 말하는 전문적인 어부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브라이언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에 대하여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조종사는 브라이언이 누구인지 알았고 스몰혼즈가족도 알고 있었으며 브라이언이 스몰혼즈가족을 방문하려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추정하고 있었다. 이제 질문을 할 두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브라이언이 틀렸다.

그 남자들은 60대가 넘은 노인이었지만 아직 건강했다. 그들은 카누를 끌어내려서 선창에서 떨어져서 있는 비행기 플로트에 능숙하게 묶었다. 브라이언은 두 남자가 아주 많이 닳아서 형제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턱이 네모지고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했으며 머리칼은 백발이고 뺨뺨했다. 그들은 잘 웃었고 브라이언에게 안녕 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지만 브라이언에게 더 묻지는 않았다.

비행기는 남자들이 뒷좌석에 장비를 가지고 탈 즈음엔 거의 꽉 찼다. 브라이언도 마찬가지로 배낭을 가지고 뒷좌석에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비행기는 어른 4명만 탈 수 있어서 노인 한명은 브라이언 옆에 앉았다. 브라이언이 남자에게 말을 걸어야 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되어버렸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낚시장비는 새것도 아니고 최첨단 제품도 아니었다. 낚시줄 감는 열레는 실패를 돌려서 낚시줄을 감는 구조로 되어있었고 잘 관리되었으며, 남자는 거의 애정 어린 보살핌으로 릴을 소중히 다루었다.

브라이언은 아무 말이 없다가 남자들이 공중에 있게 되자 브라이언 바로 옆에 있는 남자에게로 돌아보았다. “낚시하러 많이 다니시나요?”

남자는 창밖으로 호수아래를 바라보고 있다가 돌아보더니 웃었다. “일 년에 한 번. 우리는 오지 호수들로 가서 머스키를 잡으려고 낚시를 했었던다. 우리는 머스키를 잡아서 놓아 주었는데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인공 미끼를 던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거의 머스키를 잡지 않은 거지. 나는 한 마리도 잡은 적이 없어. 안에서...벤, 가장 최근에 머스키를 잡은 게 언제지? 2년 전이었나?”

앞에 있는 남자가 돌아보았다. “맞아. 아니. 내가 생각하기로는 3번이었어. 우리는 그 이후로 많은 물고기가 입질은 했지만 수확은 없었어.” “왜요?”

“내가 소년에게 우리 낚시에 대해 막 이야기하려고 하던 중이야.”

“낚시가 아니야, 있잖아. 우리는 결코 어떤 것도 잡지 않았던 것 같아.”

브라이언 옆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지역을 감상하지. 그게 전부야, 그렇지?” 남자는 브라이언을, 묻고 싶어 하는 그의 눈빛을 주의 깊

게 관찰했다.

“예.” 브라이언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게 우리 낚시에 대한 전부…”

“우리는 평생 숲에서 일했어. 벤, 앞에 있는 남자가 돌아보았다. 목재 회사를 위해, 생계를 위해 목재를 찾아 다녔지. 단지 생계 때문에. 지금은 도시로 내려왔지만 한 때는 숲에서 살았어. 음, 숲에서 사람을 데려 갈 수는 있어도 그 사람에게서 숲을 가져 갈 수는 없다고. 우리는 돌아오고 싶었어. 머스키 낚시는 단지 변명일 뿐이야.”

브라이언 옆에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마찬가지로인 게 틀림없어. 우리는 너에 대하여 들었는데, 너에 대한 일이 있었을 당시 텔레비전 재방송에서 모두 보았지. 너도 마음속에 숲을 간직하고 있음이 틀림없어.”

브라이언이 고개를 끄덕였다.

“놀라운 일이야.” 노인이 말하고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무엇이요?”

“너의 마음에 숲을 간직하고 있는 거. 젊은이들은 거의 결코 숲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아. 너는 아주 운이 좋구나.”

브라이언은 남자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브라이언은 전에는 자신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노인이 말이 정확히 맞았다. 마음속에 숲을 가지고 있고 숲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행운이었다. “낚시 잘 하세요.” 브라이언은 진심으로 말했다.

“그래 너도 역시.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기를 바란다.” 노인이 말했다

브라이언이 미소를 짓고는 숲과 비행기 아래 펼쳐진 호수를 지켜보았다. 비행기 엔진의 웅웅거리는 소리 때문에 졸음이 왔다. 그는 야생을 바라보고 있다가, 반쯤은 졸고 있었는데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서 생각했다. 세상에, 이곳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을 때 숲은 기도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 목 록

카누. 17 풋, 강철보다 강한 유리섬유인 케볼라(kevlar)로 만들어졌으며 강에서 데릭과 함께한 시간부터 뗏목이라고 명명함. 유리로 된 노 끝이 끼워진 넓은 나무 노 2개가 달림. 한 개의 유리섬유와 에폭시 수지(접착형 절연재)로 된 수리장비, 가벼운 구멍조끼와 부유장치가 있음.

스트레이트 보우. (현을 풀었을 때 완벽하게 곧은 형태의 활) 나무와 유리 합판으로 된 것. 강도 45파운드 활을 잡아 당겼을 때 길이 26인치, 여분의 화살 4개, 삼나무 화살대 여러 개, 강도가 활에 맞게 조정된 화살빠대, 사냥용 화살촉 60개, MA-3보로드헤드 화살촉 50개, 나크 (화살을 시위에 메기는 용구) 여러 개. 규격에 맞게 잘라놓은 4인치 깃 몇 개 - 플라스틱 아닌 터키로 된 것-여러 가지 만드는데 필요한플, 화살촉 접착제, 깃털을 붙이는 작은 화살 깃 다는 기구. 화살촉과 활고자에 걸고 화살대를 아래로 당기는데 쓰는 끝이 뾰족한 플라스틱기구 공구.

브라이언은 화살에 대하여 오랫동안 고민했다. 미리 만들어진 화살을 가져 갈 것인지, 화살을 만드는 재료를 가져 갈 것인지 생각하다가 결국은 둘 다 가져가기로 했다. 그는 완성된 화살 24개와 수렵에 쓰는 화살촉인 브로드 헤드 6개 그리고 필드포인트 사냥용 화살촉 6개를 가지고 있었다.

화살촉을 가는 데 쓰는 작은 숫돌과 줄. 몸 등 중앙에 매다는 장식 없는 가죽 화살 통.

그는 어깨에 매는 표준형 화살 통을 가져갈지, 이중 허리띠가 달린 등 중앙에

매다는 화살 통을 시용할지 다시 고민하다가 브라이언의 머리가 화살을 가려주고 숲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 화살을 계속 쏠 수가 있고 해서 등 중앙에 매다는 화살 통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칼, 조준용 손잡이가 달린 장식이 없는 사냥용 칼. 약 2인치정도 칼날 뒷면이 역시 날카롭게 갈아지고 끝을 제외하고 한 쪽 면도 날카롭게 갈린 수평 6인치 평평한 날. 무기로 사용 될 수 있는 연장 1개. 슛돌과 줄은 칼과 손도끼를 갈고 화살촉을 가는데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

#### 손도끼

칼을 가지고 가는 것을 심사숙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손도끼를 가지고 가려는 결정을 하는 것도 많은 변동 사항이 있었다. 하지만 브라이언은 수수한 허리에 매는 도끼를 선택했다. 그 도끼는 브라이언이 처음에 북부로 출발했을 때 어머니가 브라이언에게 주었던 것과 비슷한 도끼였다. 칼처럼 도끼는 언제나 허리띠에 있었고 언제나 허리띠에 차서 다니곤 했다. 도끼가 필요한데 가지고 있지 않은 것보다는 가지고 다니기는 하나 위험한 상황이 와서 무기로 도끼를 쓰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알았다.

낙시장비, 고급 장비는 아님. 낙시 줄이 감겨진 실패 2개, 20파운드 테스트, 금속 낚 12개와 작은 봉돌을 넣은 통1개, 고무줄을 꼬아놓은 종류, 여러 종류의 낙시 바늘 100개를 한 용기에 넣은 작은 플라스틱 상자. 낙시대와 릴은 가져가지 않고 낙시 바늘과 낙시 줄 그리고 봉돌들만 가지고 감.

이 시점에 목록에 있는 것을 살펴보니 일종의 고집스런 생각이 불현듯 떠올



랐다. 브라이언은 예전에 훨씬 적은 장비로 산 적이 있었는데 가지고 있으면 부자인 것 같이 느껴지는 현대식의 활과 좋은 화살들, 진짜 낚시장비들이다. 그래서 마음 한 구석에서는 신식 장비들을 가지고 가기를 원했다. 아마도 요리하기 위해 냄비에 재료를 던져 넣거나 물론 얼마간의 옷들도 마찬가지로 현대식 장비인 세탁기에 넣어서 빨래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의 표현에 따르면, 야생에서 “실종”된 이래로 2년 반 동안 어떤 것을 냄비에 던져 넣는 것과 같이 완전히 나태하게 지내지는 않았었다. 브라이언은 책을 읽어왔고 지식을 늘려나갔으며 읽었던 대부분의 것은 현대판 생존 전문가나 최첨단 기술 장비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일을 쉬고 생존기술에 대한 책을 쓰거나 생존에 대한 기록물을 찍어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 역사상 인물이 다른 선택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야생에서 살아남았던 진정한 승자들에 대한 것을 공부했다. 그들은 바로 과거시대에 살았던 원시사회의 북미 원주민들과 에스키모인, 크리족과 심지어 미국 남서부 사람들인데, 그 지역의 지형이 북부 숲에 사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힘든 환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생존은 게임이 아니라 삶이었다. 그러니까 원시 삶과 같은 브라이언이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삶은 사실상 그 사람들에게는 현대적인 것이다. 원시적인 삶이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아니면 죽었느냐 하는 것이었다. 브라이언은 읽고 또 다시 읽었다. 만약 그런 부족들도 현대식 장비를 쓰는 것이 가능 했더라면, 사람들이 새로운 장비들이 나왔을 때 했던 것과 꼭 같이 현대식 장비를 사용했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아주 소수의 북미 원주민은 사냥하기 위해 돌화살촉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하나 그래도 브라이언은 그 부족들 가운데 얼마정도는 여전히 활을 가지고 사냥했다고 생각했다.

브라이언은 아직은 제한을 두기로 마음먹었다. 만약 그가 정신이 나가서 총들이나 물 제조기, 특수한 옷이나 장비 등 모든 가능한 것을 가져갔다면 그가 찾은 아름다움이나, 자신에게 온 야생과의 교감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그래서 브라이언은 조심스럽게 목록에 품목을 더했다.

책들, 셰익스피어 완성작품 2권으로 된 소형 책. 북부 숲에 있는 먹을

수 있는 식물과 견과류와 딸기종류에 대해 그림이 같이 있는 명확한 도감.

브라이언은 텔레비전을 싫어하는 것 못지않게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책들은 무겁고 함부로 다룰 수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책을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 곰곰 생각했다. 브라이언은 칼랩에게 물어보기로 마음먹었는데 칼랩은 브라이언에게 되물었다. “누가 작가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니?” 브라이언은 칼랩이 말해줄 때까지 찢찢맸다.

“셰익스피어란다.”

“저는 한 번도 셰익스피어를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음 그럼, 지금이 읽기 시작할 좋은 때야.” 칼랩이 말했다. “읽을 때는 크게 소리 내어 읽으렴.”

“혼자서 읽을 때도요?”

“크게 소리 내어 읽으면 이해하기가 더 쉬워.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희곡이야. 그 작품들은 크게 소리 내어 읽어야 할 것이지. 그냥 시도해봐.”

숲이 때로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지만 브라이언은 숲에서 한가한 시간에 스스로 많은 것을 배웠다. 브라이언은 자신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싶어서 휴대용 도감을 가져왔다. 정신을 위한 셰익스피어의 작품들과 먹을 것을 위한 도감.

여분의 샤프심과 샤프펜슬 3개, 줄이 없는 작은 공책 4권.

브라이언은 대개 일기를 쓰지 않았는데, 지금은 일기 쓰는 것에 자신을 매어 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칼랩과는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어떤 점에서는 부모님보다도 더 가까이 지냈다. 칼랩에게 계속 편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봉투에 편지를 여러 장 넣어서 보내는 대신에 편지를 보낼 방

법이 있으면 한 번에 공책을 보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캠핑장비와 필수품. 좋은 나침반 1개.

그는 위성 신호로 받는 지구 위치 추적 장치를 가져갈까 생각했지만 복잡한 장치에 대한 불신도 있고 해서 가져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잘못된 장소에 가져간 장비가 오히려 브라이언을 위협에 처하게 할 수도 있으니 그것도 소용없는 일이다. 그 외에 조종사에게서 훌륭한 지도를 받게 될 것이다. 모든 호수가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였다.

외부에 테두리가 되어 있는 아주 좋은 품질의 배낭 2개. 소형 캠프 삼 1개.

이 시점에서 세계 정치 상황이 브라이언에게 도움이 되었다. 소련 연방이 분리되자 무너지는 군사 기지들이 가지고 있던 것 중 하나가 잉여 티타늄이었다. 기업가 기질을 가진 어떤 러시아인이 티타늄을 가지고 초경량, 초강력 캠프 삼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내었다. 브라이언은 상품목록에 있는 캠프 삼을 샀다.

입구 가리개가 있고 둥근 지붕모양이 되는 종류로 작지만 좋은 품질의 2인용 텐트 1개.

브라이언은 텐트가 얼마나 같지 확실치 않았다. 아마 첫 번째 꿈이 텐트를 찢어버리기로 걱정하기까지는 가겠지. 그래도 한 동안은 모기 없는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0도(최상급) 등급 침낭.

이 침낭은 여름침낭으로는 너무 따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가을과 겨울밤, 극심한 추위용으로 생각한 것이다. 여름 동안은 침낭을 열고 그 위에 잘 수도 있을 것이다.

알루미늄 냄비2개, 2리터와 4리터용량으로 뚜껑이 있는 것. 대형 절연 컵1개. 2리터 플라스틱 물통 1개.

프라이팬과 기름은 가져가지 않음. 스토브도 안 가져 감. 브라이언은 모닥불 위에서 요리를 하는데 익숙해졌고 더 좋아했다. 그 외에, 그가 스토브를 사용하려면 연료를 가져가야 해서 그것도 아주 큰 새로운 문제였다.

비닐봉지에 넣은 소금 1통.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브라이언은 숲에서 많은 양의 소금을 잃어버렸다.

비닐봉지에 담긴 각설탕 3상자.

단 것을 좋아하는 자신을 위한 것.

1갤런 용량의 지퍼밀봉 비닐봉지 3상자. 여러 달 먹을 차.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비타민 C 정제 4통과 종합비타민 3통.

처음에는 비타민을 가져가지 않았지만 브라이언의 어머니와 칼럼이 가져가야

한다고 우겼다. 어머니는 당분간, 아마 오랫동안이 되겠지만 혼자 지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 어쨌거나 어머니는 비타민을 가져가기를 원했다. “네가 가려고 하는 곳의 그런 사람들은 비타민을 복용하지 않니?”

“스몰혼즈네요. 그들은 스몰혼즈 가족들이예요, 엄마, 그 사람들이 아니예요.”

“무엇이건 간에. 확실히 그들도 비타민을 복용하지. 너는 비타민을 가져가야 해.”

종량제 비닐봉투에 담은 현미 25 파운드. 장비와 꾸러미들을 위한 방수용 비닐 백 30개짜리 두루마리 1개

브라이언이 읽은 책에서, 세계의 많은 문화권의 대부분 사람들은 쌀을 주식으로 해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브라이언은 적은 양이지만, 집에서 쌀로 만든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쌀로 만든 음식은 밋밋해서 다른 음식과 섞어서 요리했고 가끔씩 생선이나 다른 고기 혹은 산나물을 이용해서 쌀과 함께 요리해 보려고 생각했다.

칼랩은 농담으로 가져가라고 했지만 밀가루, 빵, 사탕, 피자 만드는 재료도 가져가지 않고 아이스크림, 탄산음료도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전에 숲에서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없어서 크게 아쉬워 해 본적이 없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쓸모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다. 브라이언은 더 이상 자신의 삶에서 위와 같은 것은 원하지도 않았고 필요하지도 않았다.

소형 기본구급상자1개.

브라이언은 이 기본구급상자로 심각한 상처를 봉합하거나 치료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브라이언이 감염될지도 모르는 상처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항

생제 처방약으로 구급상자를 가득 채웠다. 방충제도 마찬가지로.

방수성냥 8곽, 소형 프로판가스 라이터3개.

브라이언은 불을 피우기가 어려웠던 것을 상기했다. 한편으로는 손도끼와 돌만으로 다시 불을 피울 수 있다고 확신은 했다. 브라이언이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현대적인 방법을 쓰고 싶었다. 그래서 라이터를 가져가는 것이다. 브라이언은 관심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는 사물을 자세히 관찰하려고 확대경 1개도 가지고 갔다. 만약 해가 있을 때는 불을 피우기 위해 확대경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류, 헐렁한 하이킹 바지 2벌. 부드러운 하이킹 신발 1켤레. 티셔츠 4장. 후드가 달린 폴라 폴리스웻도리 2벌. 통기성 좋은 폴라스웨터. 모자가 달린 방수복. 칼과 손도끼를 끼울 수 있는 천으로 된 군대식 스타일 허리띠1개. 운동용 양말 3켤레. 주머니가 여러 개 달린 하이킹 반바지 3개. 짧은 팬티 3장. 챙이 있는 모자 2개. 바늘들이 들어 있는 바늘상자 1개와 굵은 실이 감긴 실패 4개. 굵은 바늘이 있는 방수 바느질코드실패1개. 바늘혼합형 손잡이송곳1개. 실과 화살 줄용 소형 케이크밀랍 3개.

브라이언은 바느질 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특히 북미 인디언 가죽신을 수선 할 수 있기를 바랐다. 모카신은 가벼워서 좋지만 빨리 닳아버렸다. 하지만 모카신을 신음으로써 땅을 느낄 수 있고 조용히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하이킹 신발들은 훌륭하지만 꿰매진 모카신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가로 120 세로 120인치 방수시트 1개. 0,8인치 굵기 나일론 밧줄 200피트 -낙하산줄.

브라이언이 래니어에서 비행기 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비행기 옆 물속에서 3파운드용량의 낡은 커피 통을 발견했다.

친애하는 칼랩에게: 오늘 갑자기 나타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오래 머무르지 않아서 저는 정말 다행이었어요. 분명히 저를 지루하지 않게 해 주었어요.

이제는 결국 혼자가 되었다.

카누를 수련 옆 사이에 계속 두었고 강통 안 조그만 불에서 나오는 연기가 브라이언에게 불어 와서 모기를 쫓아버렸다. 어디에나 물고기가 있었다. 수련 옆 아래 숨어 있는 수십 마리의 파랑불우럭들과 다른 민물고기를 볼 수 있었다. 갑자기 물고기들이 방향을 돌릴 때 고기들의 배에서 노란색 빛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개복치라고 생각했다. 가끔씩 사냥하고 있는 북부의 강치가 수련 옆을 건드려 수련 옆이 물고기들을 치고 고기들을 흩어지게 하곤 했다. 나중에 쓸 식량으로 고기들을 좀 잡을까 생각은 했지만 지금은 오후 중반이기도 하고 비행기는 막 떠났고, 아직도 엔진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잡지 않았다. 어두워지기 전에 이 작은 호수 끝까지 옹기고 야영할 시간은 있었다.

그는 그들이 도착했을 때의 조종사를 기억하고는 웃었다. 비행기가 가벼워지면 연료가 훨씬 덜 들었기 때문에 조종사는 먼저 다른 두 남자를 내려주어서 단 둘이서만 있게 되었다. 100마일을 비행하는데 40분 정도 걸렸고 엔진에서 나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조종사와 브라이언은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었다.

어떤 지점에서 조종사는 뒤로 기대더니 소리를 질렀다. “너는 이곳에서 혼자서 지내도 괜찮을 거라고 확신하는 거니?”

브라이언은 숲에서 지낸 적이 있었을 때와 같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함을 질러서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것이 그들이 내릴 때까지 한 대화의 전부였고 비행기는 착륙하기 위해 호수 끝으로 활주했다.

“여기 있다, 얘야.” 조종사는 뒤쪽에 있는 폴더에서 지도를 꺼내어 브라이언에



게 건네주었다. “이 작은 호수는 페이슨 호수라고 한단다.” 조종사는 지도를 펼치더니 “너는 이 북쪽 물줄기를 따라 리버티 호수까지 가고 그 다음 이 사슬처럼 연결된 여러 개의 호수들로 가면 된단다, 바로 이곳 윌리엄즈 호수까지. 스몰혼즈네는 여기 캠프치고 있어. 스몰혼즈네는 북동쪽 끝에 있었고 거긴 낚시 캠프야. 스몰혼즈네는 호수 주변을 이동하지. 윌리엄즈 호수는 큰 호수야. 내 생각으로는 길이가 8-9마일이고 넓이는 2마일이 될 거야. 그래서 너는 스몰혼즈네를 찾아다녀야 할지도 몰라.” 라고 말했다.

조종사는 브라이언에게 지도를 주었으며 카누를 내리고 장비를 카누에 넣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하기 전에 브라이언은 아직도 떠있는 비행기 플로트 위에 서 있으면서 지도를 접어 지도를 펼쳤을 때 위에서 내려다보던 장소가 위를 향하게 지도를 접었고 지도가 물에 젖는 것을 막기 위해 비닐봉지에 지도를 넣었다. 그리고 물가로 걸어갔다.

“가을에 보자꾸나.” 조종사가 소리쳤다.

조종사는 브라이언이 비행기에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엔진에 시동을 걸었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이륙했다.

바로 작은 호수가로 이동하여 카누를 풀이 많은 평평한 지역으로 끌어올렸으며 장비를 다시 꾸렸다. 카누 안에 험령하게 풀어진 모든 것을 지지대에 묶었고 활과 화살 통을 빼고는 방수시트로 모든 것을 덮었다. 만약 카누가 쓰러지거나 구른다 하더라도 모든 장비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활을 쏘아서 활의 양 끝에 활고자가 적절하게 활에 걸렸는지를 확인했고 방수시트 위에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넣었다. 묶어 놓지는 않았지만 카누가 갑자기 굴러 떨어져도 활은 물에 떠서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날씨가 더워서 반바지로 갈아입었고 티셔츠도 벗어서 방수시트 아래에 말아 넣었다. 구멍조끼가 가까이 있었지만 3피트 물속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뒤 개울에서 일해야 하고 해서, 구멍조끼를 입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았다. 만약에 처음부터 깊은 물속에 들어 갈수도 있다면 브라이언은 구멍조끼를 입을 것이지만 구멍조끼를 입는 것이 일을 하는데 가장 신중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맨살에 닿는 햇빛이 너무 좋고 해서 잠시 동안 구멍조끼를 입고 싶지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모자를 벗어서 배낭 옆면에 달려있는 주머니에 맡아 올려서 넣었다. 파리나 모기들은 지금까지 보아 온 파리들이나 모기들처럼 지독했다. 가끔씩 카누의 바닥에 있는 깡통에서 확 풍기는 약간의 냄새가 파리와 모기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브라이언은 서두르지 않았다. 아마 다시는 절대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빠르게 자신이 가끔씩 숲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빠져들었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았던 그 당시의 시간과 같은 시간은 아니었다. 여우가 숲을 돌아다니고 있던 것을 보았고, 모든 것에 귀 기울였고, 모든 것을 보았고 그 곳에 있던 것 모두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시간을 가졌던 기억을 종종 떠올렸다.

브라이언은 이제 기억했던 것들을 했다. 움직이는 잎사귀 하나, 아주 작게 살랑거리는 바람소리, 한 마리 작은 새의 울음소리. 그는 천천히, 조용히, 숨을 쉬었고 물가를 따라 유유히 카누를 저어 갔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었고 여태까지 숲에 있었던 것처럼 숲과 하나가 되었는데 갑자기 사슴이 카누로 뛰어들었을 때 완전히 놀랐다.

친애하는 칼럼에게: 오늘 저는 하려고 계획했던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브라이언 있는 쪽으로 갑작스럽게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어찌나 빠른지 사전에 어떤 움직이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 소리는 흰 꼬리 암컷사슴 한 마리가 브라이언 있는 오른쪽 숲에서 튀어나오는 소리였다. 사슴이 덤불에서 떠날 때 보니 8피트는 충분히 되어보였다. 사슴의 눈에서 구름 같은 큰 소용돌이가 연기 처럼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은 후에 곰곰 생각해보니 파리들과 모기들이 사슴의 눈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순간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걸로 결론지었다.

그 암사슴은 물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으며 물속에 머리를 처박으면 벌레들을 물러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모양이었다.

거의 정확히 카누의 중앙 가까운 부분인 브라이언의 허리와 무릎사이 가까이 에 떨어졌다. 그리고는 나가고 싶어 했다.

브라이언은 우연히 스테이션왜건으로 수사슴을 친 적이 있는 어떤 남자에 대하여 읽은 적이 있었다. 그 사슴은 차의 측면을 들이 받아 충격으로 정신을 잃어 도랑에 누워 움직이지 않았다. 남자는 차를 세웠다. 사슴이 죽었다고 생각한 후에 고기를 훼손하는 자질구레한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남자는 사슴을 스테이션왜건 뒤쪽에 집어넣었다. 남자가 4마일 정도 갔을 때 단지 기절했을 뿐인 사슴이 깨어났다. 마치 폭탄이 차에서 터지는 것 같았다고 남자가 말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문을 열자 여전히 차가 달리고 있는데도 사슴이 도망쳤다. 사슴은 차에서 달아나기 전에 자동차 유리는 물론 창문이라고는 모조리 발로 찼다.

이 일과 비슷한 일이 지금 브라이언에게도 일어났다. 그 암사슴은 카누를 가로질러 그의 발 중간부분과 배 중간부분 사이에 떨어졌다. 사슴의 머리는 한쪽으로 기울어 물 아래로 내려갔으며 머리를 일으키려고 주변의 물을 튕기며 버둥거리면서 브라이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자신이 통나무 비슷한 것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누가 더 놀랐는지를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런...” 찌르거나 발로 차서 사슴을 카누에서 떨어지도록 할 시간이 있었다. 문제는 사슴의 뒷발이 카누의 뱃전에 걸려서 코르크마개처럼 카누를 획 돌려 버렸다는 것이었다.

브라이언은 0.5초 만에 걱정이나 근심도 없는 똑바로 서 있던 세상, 모든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생각했던 세상에서 거꾸로 되어 폐는 물이 찻고 카누 안은 장비, 수련 잎과 진흙으로 뒤섞인 세상으로 갔다.

“어이구!” 브라이언은 비명을 질렀고 진흙과 물을 내뿜었다. “어떻게...”

그는 아직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브라이언이 허리까지 오는 물속에 활, 화살, 거꾸로 서있는 카누와 아직도 쓰레기봉투 안에서 젖은 채 있는 배낭들로 둘러싸여 서 있는 동안 사슴이 물에서 나오기가 바쁘게 물가에 있는 덤불숲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금방 명확해졌다.

심하게 피해를 입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물가 인근 기슭은 직경10-12야드의 조그만 개간지였다. 브라이언은 카누의 한쪽 부분을 잡아서 물가로 끌어올렸다. 배낭들을 풀고 풀 위에 활과 화살, 여분의 노를 함께 펼쳐놓았다. 배낭들 안에 있던 장비는 비닐에 밀봉되어 있었지만 침낭은 꼭 싸 놓지 않아서 흠뻑 젖지는 않았지만 젖었다. 침낭은 침낭을 넣는 가방에 넣어두었으므로 끝에만 물이 스며들었는데 아직도 침낭을 말릴 필요가 있었다.

“음, 내가 생각해보니,” 개간지를 둘러보더니 브라이언이 말했다. “암사슴 때문에 야영장소를 찾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구나.”

브라이언은 카누를 뒤집어서 안에 있는 것을 비웠다. 풀밭에 당겨 올려서 다

시 얹어놓았고 침낭을 햇볕에 말리려고 펼쳐놓고 나서 텐트를 세웠다.

수련 잎 사이에 물고기들이 있었고 브라이언은 미끼 없는 낚시 바늘로 낚시 줄을 드리웠다. 허리까지 오는 물속에 서서 자신의 다리주변에 있는 물고기를 낚았다. 낚시 바늘은 황금색이었고 바늘은 작은 빛으로 반짝였다. 미끼가 없어도 고기가 물었고 손 크기의 민물고기를 8마리나 잡았다. 민물고기들은 식용담수어인 블루길과 크래피의 사촌으로 보이는 더 작은 갈색을 띠는 고기의 잡종이었다. 아마도 농어의 일종인 듯했다. 잡종이지만 맛은 좋을 것이다. 브라이언은 물고기를 손질하고 비늘을 벗겼으며 커다란 냄비에 넣어서 깨끗한 물을 부었다.

브라이언은 마른 유목을 30분 동안 모았고 그날 밤을 위한 땀감으로는 충분했다. 모닥불을 피워서 한쪽 위에 물고기를 올리고 작은 냄비에 물 한 컵과 쌀 반 컵을 넣어서 불꽃이 일어나는 다른 한쪽위에 앉았다. 브라이언은 그 전날 밤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오늘 밤은 밥을 든든히 먹기로 했다.

생선은 금방 지글거렸고 15분후에는 다 익었다. 밥은 30분 정도 걸렸다. 브라이언은 생선을 발라내어 금속 컵 안에 넣었고 이윽고 밥이 다 되자 생선살과 소금을 밥에 넣었다. 브라이언은 수저로 밥을 먹고 냄비를 아주 깨끗이 했다. 2리터짜리 물통을 비워서 다음날 물을 채우기 위해 큰 냄비에 물을 넣고는 끓였다. 그리고 저녁차 한 잔을 마시기로 한다.

물이 끓여지는 동안 캠프에 곰이 접근하지 못하게 다른 것을 설치하거나 브라이언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 브라이언이 문명사회로 돌아갔을 때 곰에 대하여 읽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곰들은 모두 영리하고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안전을 위하여 브라이언은 모든 음식냄새를 없애야만 했다. 브라이언은 물고기 뼈와 껍질을 캠프지역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진 곳에 묻었다. 그런 다음 나일론 밧줄 한 개의 끝을 막대기에 묶어서 무게를 주고 근처 자작나무 30피트 위에 나뭇가지 위로 던져 올렸다. 배낭에 밧줄 끝을 묶고 공중에 15피트 위로 끌어당겨서 밧줄을 중간에 멈추게 해서 매달아 놓았다. 영리한 곰은 아마도 밧줄을 씹어서 끊어 배낭을 떨어뜨릴지도 모르는 것이다. 하지만 브라이언은 주변에 영리한 곰이 많이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다.

침낭이 다 말랐고, 그는 침낭을 텐트 안에 넣었다 그러더니 모닥불 옆에 앉아 각설탕을 차에 넣어서 뜨거운 차를 훌쩍 훌쩍 마셨다. 그러면서 활도 점검했다. 활줄은 왁스가 잘 입혀져서 물이 활줄에 스며들지 않았다. 활자체는 방수가 되는 니스로 마무리 되어 있었다. 화살들은 탄판이었다. 화살들은 껍질을 벗긴 나무로 만들어졌다. 벗긴 나무에 색을 칠하거나 화살대에 니스를 칠하거나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다. 화살 깃들도 젖었다. 브라이언은 화살대가 여전히 굳게 되어있는지 확인하려고 모든 화살대를 조심스럽게 점검했는데 2개의 화살대가 약간 휘어져 있어서 불의 열기에 화살대를 갖다 대어 화살대가 굳게 될 때까지 부드럽게 구부렸다. 이런 모든 지식은 브라이언 읽었던 고대 궁술에 관한 책에서 얻은 것이었다.

브라이언은 이어서 화살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잡아서 불에서 나오는 열로 화살 깃들이 둥글게 말리지 않게 말렸다. 그것은 힘든 과정이었으나 브라이언은 서두르지 않았고 모닥불이 타면서 내는 타닥거리는 소리를 듣고 나무토막을 한 개나 두 개를 넣었고 그러면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숲의 밤을 더욱 더 깨닫게 되었다.



숲은 살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숲은 더 활동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야행성 동물들은 밤에는 더 먹이를 잡기가 쉬웠기 때문에 많은 포식자들은 야행성이다. 하지만 먹이가 되는 쥐나 토끼 같은 많은 동물들은 밤이 더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밤에 움직였다.

브라이언은 수없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 작은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동물의 털이 나뭇잎에 스치는 소리를 들었다. 아마도 그 곳에 다람쥐 한 마리가 나무들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숲 바닥을 뛰어 돌아다니는 쥐나 토끼 같은 게 있었다. 숲을 이야기 하자면 쥐나 토끼를 빼놓을 수 없다.

갑자기 브라이언은 어떤 비명소리를 들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토끼가 잡혀서 죽은 것 같았다. 그 소리는 거의 인간의 소리와 비슷했다. 아기목소리 같기도 하고 아기 인형이 넘어졌을 때 내는 소리와 아주 비슷했다. 브라이언은 두 번이나 들었고 그러더니 토끼는 여우이거나 늑대 또는 스핑크스 혹은 족제비 혹은 아마도

부엉이의 배로 들어갔을 것이다. 모두가 먹이 사슬 바닥에 있는 동물들을 먹는데 토끼들과 쥐들은 숲의 먹이사슬에서 바닥을 차지했다. 그리고 브라이언은 두 번이나 더 비명소리를 들었다.

세 마리 죽은 토끼들. 브라이언이 모닥불에서 나는 열기에 한 개의 화살을 갖다 대면서 마음속에 숫자들이 맴 돌게 내버려두었다. 한 시간에 세 마리 토끼들. 브라이언은 200야드 떨어진 곳에서 토끼들이 내는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을 뿐이었다 - 브라이언 주변이 1/4 평방 마일이라고 하자. 그 말은 아마도 시간당 여섯 마리의 토끼가 매 평방마일 당 죽임을 당하고 있었고 아직도 여전히 수백 수천의 토끼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것이다. 돌아다니는 토끼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겨울에는 아주 단단하게 다져진 간선도로에 남아서 사람들을 멈추게 하곤 했다.

브라이언은 고개를 저었다. 쓸데없는 생각이야. 토끼들이 있었다. 먹음직스러웠다. 많은 토끼를 먹었다. 더 많이 먹을 것이다. 그걸로 됐다. 밤이 깊었고 달이 떠올랐다. 화살과 화살 통을 말리는 작업이 끝나자 브라이언은 모닥불을 끄고 무기과 활을 텐트 안으로 가지고 갔다.

브라이언은 일종의 시차, 도시에서 숲으로 돌아온 충격을 겪고 있어서 그런지 매우 피곤해 했다. 텐트 안으로 기어들어가 칼과 손도끼, 활과 화살들을 머리 가까이 정리하고는 뒤로 기대어 잠을 청했다.

몇 분 동안이었다. 숲의 소리를 들으려고 누웠고 그날 하루를 생각했다. 이곳에 야영을 하려고 계획하지도 않았다. 지도에는 다음 호수까지는 불과 몇 마일이 남아있었고 야영하기 전에 그 곳에 가려고 했었다. 하지만 그 사슴이 나타나서 브라이언의 모든 계획을 바꿨다.

그 암사슴이 브라이언을 위해서 야영지를 골랐다고 생각하고는 미소 지었다. 졸음이 오자 눈을 감고 그날 하루는 잊어버리기로 했다.

친애하는 칼럼에게: 오늘 저는 셰익스피어조차도 묘사 할 수 없으리라 생각되는 정말 아름다운 곳을 보았습니다.

지도에는 대략 30 마일 정도를 차지하는 여러 개의 조그만 호수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호수와 호수 사이에 굽이굽이 흐르는 강이 보였다. 한 개의 호수의 길이가 3-4마일이 되어 보이게 강이 똑같이 나누어져 있었고 옆 호수로 이어진 강은 또 3-4마일이 되었다. 브라이언은 지도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브라이언은 막 동틀 무렵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 때는 태양이 텐트를 비추어 따뜻하게 데우기 시작하였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카누를 뒤집어 놓고서 배낭들을 내리기 위해 갔을 때 곰의 흔적을 보았다.

한 마리 곰. 중간크기. 곰은 밤에 왔었는데 아주 조용히 와서 브라이언은 곰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생각해 보니 브라이언이 아주 깊이 잠이 들어서 곰이 쓰레기통을 뒤집고 있어도 몰랐을 수도 있었다.

곰은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않았다. 모닥불 옆으로 갔던 흔적은 물고기 찌꺼기를 묻어놓은 곳으로 옮겨갔다. 곰은 찌꺼기를 파헤쳐서 먹었다. 곰은 텐트로 옮겨갔고 분명히 브라이언에게 왔었고 그러더니 배낭 쪽으로 갔다. 곰이 서서 배낭들을 손을 뻗쳐 잡으려 애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무에 발톱 자국이 나 있었지만 곰은 전혀 줄에 배낭이 묶여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어떤 것도 피해를 입히지 않고 가버렸다.

“친구, 나는 아예 일어나지도 못했었네.”라고 그가 말했다.

호수 가장자리 물속으로 카누를 미끄러지듯 넣었고 모든 장비를 실어 넣었으며 모든 것을 다시 묶었다. 시간을 들여 깡통에 모깃불을 피우기 위한 약간의 나무와 나뭇잎들을 모으고 나서 카누에 뛰어 올랐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이미



따뜻해져서 빠르게 반바지까지 벗었다.

브라이언 앞에 있는 밧줄아래 끼워져 있는 투명한 비닐봉지에 지도를 보관했다. 더 안정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노를 움직이기 위해 조그만 의자에 앉는 대신에 무릎을 꿇었다. 브라이언이 원했던 만큼 카누에서 노를 젓는 것에 자신이 없었다. 브라이언은 집 근처 작은 호수로 노 젓는 연습을 하기 위해 카누를 가져갔고 다른 장소에서는 카누를 빌려서 연습했었다. 하지만 사슴이 그렇게 쉽게 카누를 뒤집어서 브라이언이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자세를 낮추고 무릎을 꿇고 노를 젓는 것이 훨씬 잘 카누를 조절할 수 있었다.

그는 중간에서 약간 앞에 짐이 묶여져 있는 후미를 향하여 앉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카누가 거의 기울어지지 않게 했고 방향을 조정하고 조절하기가 쉬웠다. 브라이언은 노를 저으면서 지도를 살폈다.

브라이언은 지금 있는 호수에서 앞으로 1마일을 가서는 강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배낭 중 하나에 나침반이 있었지만 정말 필요하지는 않았다. 호수들은 지도위에 잘 그려져 있었고 강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었다.

강이 한 개가 아니었다는 점만 제외하면.

브라이언은 호수 끝까지 수월하게 노를 저었다. 하지만 강이 흐를 것이라고 생각한 지점에 왔을 때 강에 조류가 없다는 발견했다. 조그만 강들에 의해서 연결된 여러 개의 다른 호수들로 연결된 대신에 지대가 수평을 이루고 평평했다. 그 지역은 정말 긴 하나의 호수였고 아주 길고 조용한 작은 연못처럼 지도에 매우 좁은 부분들이 표시 되어 있었다.

그 곳은 매우 좁아서 나무들이 뺄뺄이 자라나 울창하였고 브라이언 자신이 초록빛의 신기한 나라를 통과하여 노를 저어 가고 있는 듯했다.

호수의 수면은 나무아래 아주 고요히 정지되어 있었다. 앞과 옆으로 자신이 모습이 물에 비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찌나 선명한지 마치 거울 위를 미끄러져 나아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물은 깨끗했다. 양쪽 가장자리는 수련 잎들로 덮여있었고 수련 잎 아래에 숨어있는 민물고기떼를 볼 수 있었다. 30분을 노 저어

들어가서는 수련 잎 가장자리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30 - 40 파운드정도는 되는 머스키 한 마리를 보았다.

나무들 위로는 새들이 가득했고 새들은 언제나 노래했다. 그 새소리들이 섞여 저서 일종의 음악이 되었다. 브라이언은 노를 저으면서 음을 맞추어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첫 번째 길고 좁게 뻗어 있는 호수통로를 지나 중간쯤에서 그는 밀크 손바닥 사슴과 마주쳤다. 그 암사슴은 아주 한쪽에 비껴서서 머리를 완전히 물아래로 쳐박고 수련 잎 뿌리를 잡아당기고 있었다. 브라이언은 사슴과 마주치자 조용히 미끄러지듯 노를 저어 갔고 사슴은 갑자기 머리를 쳐들어 바로 브라이언을 쳐다보는 듯했다.

브라이언은 과거에 사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 사슴들은 비상 식적이어서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브라이언은 두 번이나 그들에게서 공격당했다. 그는 노를 조용히 내려놓았고 활을 잡았다. 활 옆에 있는 배낭 건너편에 놓여있는 강력한 수렵용 활을 들어올렸다. 천천히 움직여서 활에 화살 줄을 맞추었다. 만약 필요하다면 활을 잡아당길 수도 있었고 사슴이 공격한다면 최소한 하나의 화살이 사슴을 쏠 수도 있었다.

사슴으로부터 20피트가 안 되는 거리를 지나쳤지만 사슴이 하는 것이라곤 계속 뿌리를 씹고 있는 것이었으며 사슴의 코끝에서 황금빛 물방울이 보석처럼 물 표면을 깨뜨리며 똑똑 떨어지고 있을 뿐 이었다. 마치 사슴이 브라이언을 보지 못한 것 같은 상황이었고, 아마도 보지 못한 것 같았다. 브라이언이 읽은 바로는 말코 사슴은 지독히 시력이 나쁘다고 했다. 아마 사슴이 생각하기로는 단지 통나무가 물위를 떠내려간다고 생각했을 지도 몰랐다. 브라이언이 지나가기 전에 사슴은 다시 머리를 물아래로 쳐박고는 수련 잎 뿌리를 더 찾았다. 브라이언은 주위의 아름다움을 주의 깊게 다시 감상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는 마치 자신이 그림 안에, 한 개의 아름다운 작은 호수 입체 모형 안에 있다는 느낌이었다. 비바람이 들이치지 않는 호수 인근의 작은 늪을 노 저어 지나간 다음 작은 호수로 건너가기 위해 널따란 호수로 갔고, 고요한

호수를 통과하여 나무들이 울창하여 하늘이 가려져 있는 곳으로 되돌아왔다.

브라이언은 하루가 그렇게 빨리 지나가거나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이 지나가는 것을 본적이 없어서 캠프를 찾아야 한다는 것과 어둡기 전에 약간의 식량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거의 잊어버렸다. 아직은 끓인 생선과 밥에 싫증나지는 않았고 해서 늦은 오후에 천천히 수련 잎을 따라서 되돌아와서 낚시 바늘을 드리웠다. 즉시 커다란 개복치 한 마리를 잡았다. 다시 빈 이끼바늘로 작은 개복치를 세 마리나 잡았다. 고기들을 사방에 떨어뜨려 놓고는 어부들이 생선 매다는 끈으로 쓰는 나일론 밧줄 한 줄을 사용하여 아가미를 꿰어서 입으로 나오게 끈을 매달았다.

브라이언은 천천히 야영지를 찾았고 호수면 5피트나 6피트 정도 위 평평한 곳에 야영지 한 곳을 골랐다. 직경이 약 20야드 되는 빈터였다. 여러 개의 이런 빈터들이 있었는데 이것들 모두는 아마도 비버들이 이전에 작은 나무들을 잘라 만들어 놓은 곳으로 풀들이 자라있었다. 브라이언은 카누를 끌어당겨 올려 공연히 풀밭위에 놓고 카누의 뱃머리에 달려있는 줄 한 개를 나무에 묶었다.

후에 브라이언은 어떻게 이런 선견지명을 가질 수 있었는지 의아해 하곤 했다. 브라이언은 그 날 밤 이전에는 이런 곳에 야영지를 정해본 적이 없었고 여기 수면보다 훨씬 높은 곳에 카누를 안전하게 두는 것을 생각도 못했었기 때문이다.

한 밤중에 폭풍우가 몰아쳤다.

존경하는 칼럼에게: 당신이 화살로 자신의 다리를 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 이외  
는 오늘은 그다지 이야기 할 것이 없군요.

그렇게 굉장히 센 바람은 아니었다. 확실히 전에 경험했던 토네이도와 같은 심한  
바람은 아니었다. 야생에 혼자 고립되었을 때 상당한 바람이 불긴 했지만 이렇게  
심한 비는 내리지 않았다.

비와 바람이 같이 내렸다.

브라이언은 저녁을 만들어서 먹고 다음날 물통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끓이고  
나무 아래로 배낭들을 옮기고 텐트를 친 다음 침낭을 펴고 무기도 정리했다. 그  
런 다음 모닥불 옆에 앉았고 공책에 적혀있던 그 날에 있던 일에 대하여 칼럼에  
게 편지를 썼다. 작은 글씨로 종이를 낭비하지 않게 썼다.

편지를 다 쓰자 공책을 비닐봉지에 다시 넣었고 텐트 안에 기어 들어가 잠자  
리에 들었다.

편지에서 두 가지를 언급했지만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았다. 하나, 모  
기와 파리들이 전에 있던 모기와 파리들처럼 지독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 묵중  
한 구름층이 생겨서 답답한 기운이 감도는 것이다

브라이언은 지도를 천천히 살폈다. 20마일 이상을 와서 그런지 피곤했다. 월  
리암 호수에 가려면 80 마일이 남았다. 아마 현재 속도로 가면 4일은 더 걸릴 것  
같았다. 브라이언은 눕자마자 곧 잠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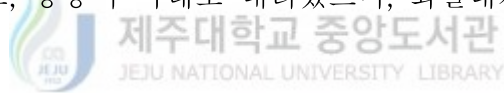
익숙하지 않은 소리에 잠이 깼다. 천둥이나 번개가 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천둥소리는 아니었고 토네이도의 기차소리 같은 굉음도 아니었다. 낮게  
시작될 뿐이더니 텐트로 몰아치는 비가 식식거리를 소리를 냈다. 잠시 동안 듣다  
가 가방 뒤로 바싹 달라붙었다. 훌륭한 안식처에 있었고 방수가 되는 곳에 있었

으므로 비가 오게 내버려 두자.

그것 외에는 비는 계속 내리고 또 내렸다. 처음에는 알맞게 내리던 비가 폭우로 변하더니 마침내는 노골적으로 퍼붓기 시작했고 비와 함께 바람도 불었다. 아주 심하지는 않았지만, 나뭇가지들을 부러뜨리기에 충분한 바람이었고, 비는 여전히 점점 심해지더니 이내 텐트 아래로 비가 들어오면서 가방이 젖었다. 브라이언은 밖을 내다보려고 덮개를 들어 올렸지만 아무 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어두웠다.

이어서 비는 더욱 더 심해졌다. 바람도 더 강해졌다. 마침내 텐트가 흔들거렸다. 텐트가 무너져 내렸고 브라이언은 개간지 가장자리를 향하여 풀밭을 가로질러 구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거꾸로 되고 무너질 것 같았다. 브라이언은 입구를 발견 할 수가 없었다. 텐트가 5피트 제방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 그 순간에 호수가로 굴러 떨어졌다. 퇴적물 위에 떨어졌다. 오른쪽 다리 위쪽 허벅지에 강렬하고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통증이 아래로 내려갔으며, 화살대가 다리에 맞아 튀어나와 있는 것을 느꼈다.



‘큰일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내가 내 다리를 쏘았다. 물론 브라이언이 쏜 건 아니었지만 텐트가 제방에서 굴러 떨어질 때 화살 통에서 나온 화살에 구르면서 맞은 것이었다.

브라이언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지만 자신의 허벅지가 있는 곳을 알았고 화살을 잡아서 다리에서 화살대를 획 잡아당겼다. 바로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고 마치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죽지 않았고 그 때 영화에나 나오는 야릇한 소리가 들려왔으며 머리에 무언가가 팡 부딪쳤다. 이번에는 기절했다.

극심한 머리 통증과 다리통증으로 몇 초 후에 깨어났고 세상에서 전혀 생각 하지 못한 일이 브라이언에게 일어났다. 브라이언은 아직도 텐트 안에 갇혀있었고 배낭은 얼굴위에 있고, 활과 화살들은 주변에 널브러져 있었으며, 아마 물 안에 있는 것 같았고 거의 수영하고 있는 상태였다.

‘좋아. 한 번에 한 개씩 하자. 꼭 한 개씩.’ 브라이언은 생각했다.

‘화살로 다리를 찢어보았다. 잘 붙어 있구나. 좋아. 나는 화살을 뽑았다. 내 다리는 아직도 멀쩡하다. 아주 깊게 들어가지 않은 걸로 보아 브로드헤드는 아난게 틀림없다. 좋아.’

‘텐트는 무너졌지만 그 곳에 그대로 있다. 다른 것들도 있다. 나는 텐트 안에 있고 무너졌다. 나는 지퍼가 있는 입구를 꼭 찾아야 하고 나가서 독으로 올라가야 한다. 이제는 아주 쉬워, 쉬워졌다.’

‘무언가 내 머리를 쳤다. 무엇이지? 무언가 둔탁한 소리를 내는 커다란 것이었다. 내 카누. 카누가 바람에 밀려와 내 머리를 쳤다.’

‘카누가 맞다. 나는 내 다리를 찢어보았다. 제방 아래로 굴렀고 카누로 머리를 맞았다.’

‘단순한 모든 일들.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일들.’

브라이언은 주변을 더듬어서 마침내 텐트 입구에 달려있는 지퍼를 찾아서 열고는 호숫가 진흙 속으로 미끄러지듯 나갔다.

비는 아직도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고, 바람도 여전히 쉬익 하는 소리를 냈으며, 비와 섞여 브라이언을 매질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 일을 해결하는 게 불가능 한 것은 아니었다. 브라이언은 텐트를 끌어당겨 제방 위 풀밭에 올랐고 다리에 통증이 올 때는 절룩거렸다. 너무 어두워서 사물을 잘 분간 할 수 없었지만 카누가 거꾸로 놓여 있는 형태는 식별할 수 있었다. 브라이언이 카누를 놓아 둔 곳에서 10피트 정도 옮겨져 있었다. 밧줄로 단단하게 묶지 않고 줄을 느슨하게 해 두었는데 호수 건너편으로 바람에 의해 불어 날렸다.

브라이언은 야생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는데,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한 가지는 예기치 않은 것을 예측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당신을 가만 두지 않을 것이고, 정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브라이언이 했던 한 가지는 옳았다. 나무에 카누를 묶었다는 것이다. 카누로 텐트를 끌어당겨서 아래로 기어가서 남아있는 밤 동안은 텐트위에 누웠

다. 바람과 비 소리에 귀 기울였고, 가끔씩 다리에 오는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렸고, 바보같다고 느꼈다.

긴 밤이었다.

친애하는 칼럼에게: 오늘 나는 셰익스피어 작품을 한 부분을 읽었어요. 셰익스피어가 쓴 그 대사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장비를 재정비하고 브라이언도 마음을 다시 충전한 날이었다.

새벽은 축축하고 흐려서 마른 나무와 잎들을 찾고 제대로 된 모닥불을 피우는데 1시간 상당이 걸렸으며 모닥불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브라이언을 꾸짖는 것 같았다. 숲에서 불을 피웠던 모든 방법을 잊어버린 것인가? 브라이언은 안전 캠프를 만들지 않았고 텐트 주변에 빗물도랑도 파지 않았으며 땀감도 가져오지 않았고 해서 아침에 마른 불쏘시개를 사용했다.

그는 야영지 주변 숲을 통과하여 질름거리며 걸어 다니다가 이윽고 아직도 온전한 껍질이 있는 말라버린 자작나무 통나무를 발견했다. 자작나무 껍질은 거의 방수가 되었으므로 북미 원주민이 카누를 만들기 위해 사용했었다. 껍질 바로 밑에 마른 유목에 붙어 있는 가늘고 긴 조각을 떼어냈다. 두 아름의 자작나무껍질과 가늘고 긴 껍질조각들을 야영지로 가져와서는 성냥 한 개만 있었어도 세 번씩이나 시도하지 않아도 될 것이었다고 중얼거리며 세 번이나 불을 피우려고 시도 한 후에야 마침내 탁탁 소리를 내는 불꽃을 피울 수가 있었다.

일단 자작나무 껍질은 불이 붙으면 마치 등유에 잠깐 담가 둔 종이가 더 잘 타오르는 것처럼 잘 붙었고, 이어서 나무에 불이 붙었고, 불꽃이 잘 타오르자 브라이언은 작고 젖은 장작을 여러 개 불 위에 더 넣었다. 불꽃에 나무가 마르자 나무가 더 타기 시작했으며 다시 30분 지난 후에 불꽃이 피어 활활 타올랐다.

브라이언은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다리를 살펴보았다. 반인치가 안되는 깔끔하게 뚫린 상처가 있었다. 구급상자에서 약간의 소독약을 꺼내어 상처위에 소독약을 토닥토닥 발랐으며 반창고를 붙이고는 일하러 되돌아갔다.



바람은 줄어들었고 비도 간간이 뿌리더니 잦아들었다. 브라이언은 구름사이로 맑은 하늘을 보았다. 장비들은 말리려고 펼쳐놓았고, 나일론 밧줄로 장비를 나뭇가지에 묶었다. 침낭은 완전히 젖었고, 텐트는 더럽혀져서 엉망진창이었다. 브라이언은 텐트를 단단히 고정시켜 텐트를 다시 세웠으며, 이번에는 말뚝을 박아 텐트를 쳤고, 작은 삽을 사용해서 텐트 양쪽을 빙 둘러서 배수도랑도 팠고, 배수도랑 양쪽, 호수 아래로 물이 내려가는 도랑도 팠다.

바람이 불어 나무에 묶어 놓은 배낭들이 큰 나뭇가지 사이에 엉키어 버렸지만 아직은 이상이 없었다. 브라이언은 엉킨 것을 겨우 풀어서 배낭들을 땅으로 내렸다.

다시 화살들과 화살 통을 말렸고 그의 활을 점검했다. 그런 다음 카누를 타고 15분 정도 걸려서 6인치 상당의 담수어를 잡았다. 물고기를 손질해서 차 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의 소금을 넣어서 냄비에 끓이려고 넣고, 다른 냄비에 쌀을 넣고 나자 갑자기 모든 일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말리고 있던 침낭에서 수증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해가 뜬 것을 알 수 있었다. 브라이언은 모닥불 옆 땅위에 긴장을 풀고 누워서 일어났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했다. 어떤 것도 절대 추측하지 말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과, 항상 모든 것을 준비해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배웠다고 생각했을 즈음 다리가 지근거렸다.

마침내 브라이언은 자신이 계획하는 일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모든 성패는 자연의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연의 일부이어야만 했고,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연과 동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진정으로 자연을 닮은 존재였다.

브라이언은 밤에 땀 장작을 모았으며 말리려고 햇볕에 널어놓았다. 브라이언은 가끔씩 밥을 식혀서 먹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물고기에서 살을 발라내어 밥과 섞어서 식히려고 한 쪽에 두었다. 햇볕 아래 발가벗고 누워서 (그의 반바지는 나뭇가지에 걸어 말리고 있는 중이었다.) 모닥불에서 나오는 연기가 모기를 쫓아버리게 두고 지난밤에 잃어버린 잠을 잡으려 꾸벅 꾸벅 졸았다.

그는 4시간 이상을 폭 잤다. 깨어났을 때는 모닥불이 거의 꺼져 있어서 타고 남은 숯 위에 나무를 더 넣어 모닥불을 다시 피웠다.

오후 중반이어서 밥과 물고기 살이 혼합된 밥을 먹었으며 후식으로 차를 끓여 각설탕을 넣어서 마셨다.

저녁이 되자 가방이 다 말랐다. 그는 텐트에 가방을 넣었고 약간 햇볕에 탄 것 같아 윗도리를 입었다. 그의 손이 셰익스피어의 책들 중 한 권에 쿡하고 닿았다.

“그래 이 책을 읽어야겠다…”

브라이언은 학교에서 셰익스피어 작품을 본 적이 있었지만 사실은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 학생들이 한 연극은 로미오와 줄리엣이었는데 그 작품은 젊은 연인들에 관한 것이었고, 그래서 다시 읽어보려고 했다.

브라이언은 물가에 서서 크게 소리 내어 읽었는데 처음에는 바보 같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는 칼럼을 좋아했고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 큰소리로 읽었고 줄리엣이 대사 2막 1행에 올 즈음에는 마음이 동요되었다.

*아, 로미오님, 로미오님, 왜 당신의 이름이 로미오인가요?*

*아버님을 저버리고 그대의 이름을 거부하시어요.*

*그렇게 정히 못하시겠다면 차라리 제가 더 이상 카폴렛 가문에 들지 않겠어요…*

이 대사를 읽자 브라이언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전에는 텔레비전이나, 학교에서 이 대사를 들었을 때마다 줄리엣이 로미오를 찾고 있는 대사를 듣고 생각했다 그리고 로미오가 있는 곳이 어딘지 궁금해서 로미오를 큰 소리로 불렀다. 오후 햇살 아래서 호수 위로 퍼지게 셰익스피어의 대사를 크게 읽었을 때 브라이언에게 의미가 있었던 그 말들이 생각났으며 그 말은 틀렸다는 것을 알았고 줄리엣이 로미오를 부르는 대신에 브라이언을 부르고, 왜 잘못된 가족, 몬테규

가문의 일원이 되었는지, 그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면... 라고 로미오에게 묻는 대신에 브라이언에게 묻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브라이언의 읽은 줄리엣의 대사 몇 줄은 다음과 같다.

*이름이 대체 무슨 소용인가? 우리가 장미라 부르는 그것을 다른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여전히 향기로운 것을.*

그리고 브라이언은 알았다. 마치 그의 온 세계가 갑자기 열리는 것 같았다. 셰익스피어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을 알았다. 로미오를 향한 줄리엣의 사랑과 그녀의 고통과 두 집안간의 싸움의 고뇌로 인한 절망을.

이 남자는 브라이언이 태어나기 수 백 년 전에 브라이언과는 아주 다른 세상, 다른 행성일지도 모르는 세상에서 이러한 것들을 썼다는 것을 브라이언은 알게 되었다...

이것은 브라이언을 흔들어 놓았다. 삼백년도 더 전에 쓴 사랑이야기를 읽고 그 연인들이 어떻게 느꼈고, 어떻게 상처 받았는지, 북부 야생에서 호수 한 편에서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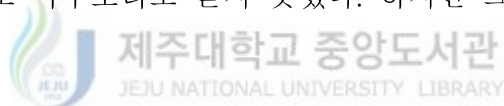
브라이언은 책을 덮은 채 다리를 꼬고 풀밭위에 앉았고, 해는 기울어 저녁이 되었으며, 셰익스피어를 모르고 내내 시간을 허비했다고 생각하자 눈물이 두 볼에 흘러 내렸는데 그 눈물은 로미오와 줄리엣을 위한 눈물이기도 하고, 아직도 살아있었다면 좋겠다고 바라는 셰익스피어를 위한 눈물이기도 하고, 그 자신의 상실에 대한 눈물이기도 했으며, 슬픔을 알게 된 아름다움에 대한 눈물이기도 했다.

*친애하는 칼럼에게: 숲은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도시에 속해 있던 대부분이 제 몸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무엇인가가 그를 깨웠다. 아마도 하루 종일 폭 잠을 잤기 때문일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고요한 한밤중에 그의 눈이 갑자기 번쩍 뜨였고 일어나 앉아서 멍하니 귀를 기울이다가 조용히 숨을 죽였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브라이언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텐트를 열고 밖을 쳐다보았다. 여전히 아무 것도 아니다. 적어도 아무소리도 듣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본 광경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하늘은 맑고 별들이 가득하고 달은 반달이었으며 호수 수면을 가로질러 나타난 하얀 길인 은빛 줄무늬가 호수를 가로질러 놓여있었는데, 텐트를 닫고 카누로 가서 카누를 뒤집고는 수면위에 노 저어가라고 너무나 강렬하게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다.

그날 밤은 모기들도 오지 않을 정도로 멧졌다. 브라이언은 한번 노를 저어 카누가 미끄러지듯 나아가게 했고 제방에서 멀리 나와 호수 수면위에 비치는 은색으로 빛나는 달빛 속으로 노 저어 갔다.

다시 노를 저어 고요한 수면을 가로질러 다시 미끄러지듯 나아가서 흐르는 은빛수면 위를 통과하여 나아갔다. 아비 새 한 마리가 울었다. 왼쪽 어디에선가 소리가 나는 것 같았지만 그 소리는 주변으로 퍼지더니 이윽고 호수를 가득 메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달빛과 섞여서 그 소리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달빛은 호숫가에 드리워져 있었고 달빛 속에서 아주 잠깐 동안 볼 수 있는 소리가 되었다. 그러더니 아비 새가 다시 울고 다른 아비 새가 그 소리에 응답하더니 갑자기 멈

추었는데 그것은 겨우 백 야드 떨어진 호숫가 먼 가장자리에서 한 마리의 여우가 울부짖는 소리 때문이었다.

길고, 듣기 좋은 소리로 슬프고, 행복하고, 놀라고, 기뻐하는 감정의 기복을 나타내는 소리가 한꺼번에 낮고 날카롭게 울부짖는 소리가 높아지더니 낮아지고 마지막에는 거의 쉼 소리를 내었다.

브라이언의 뒷목의 머리카락이 쭈뼛거렸다. 호흡을 깊이 가다듬고 여우가 울부짖는 소리에 응답했다. 여우의 소리와 음을 맞추려고 같은 방법으로 처음에는 높은 음으로 시작해서 매우 낮게 소리를 낮추고 마침내는 차츰 잦아드는 소리를 냈다.

그런 다음 기다렸다. 10초, 20초, 1분정도를 기다리자 여우가 다시 울었다. 이번에는 다르다. 내내 낮은 소리를 내더니 거의 신음소리가 되었다.

그리고 브라이언은 응답했다.

세 번이나 서로 주고받았고 마침내 여우가 울음소리를 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우의 울음소리에 맞추고 조화를 이루며 그렇게 같이 4개 이상 노래를, 2중창으로, 달빛 속에서 여우와 소년이 노래했다. 드디어 여우가 지쳐서 조용해질 때까지 아름다움에 맞추어 노래했다. 두 번 이상 소리를 질렀지만 여우가 울음소리를 멈추고 대답하지 않자 브라이언도 멈추었다.

어쨌든 달은 수평선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고, 브라이언은 노를 저어 야영지로 되돌아왔고 카누를 잡아당겨 올려서 묶어두고 잠자리에 들려고 텐트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잠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누워서 여우와 달빛과 아비 새를 생각하다가 눈을 감자 잠이 오기 시작했고, 브라이언이 여우를 보게 될지도 모르고 혹은 아마 여우가 밤새나 밤에 잠시 돌아다닐 때 수증기처럼 여우를 지나갔던 숲의 냄새와 소리들,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추고 있는 여우, 달빛과 숲을 소리 없이 미끄러져지듯 움직이고 있는 여우처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며 브라이언과 여우가 어우러지고 브라이언에서 여우로, 여우에서 브라이언으로 주고받으며 냈던 소리들을 생각했다.

그러더니 잠이 들었다.

아주 상쾌하게 잠이 깨었다가 동이 트고 나서 다시 잠이 들었다. 맑은 아침이었고 햇빛으로 텐트 한부분이 따뜻해지자 텐트 밖으로 나와 기지개를 펴고 카누를 뒤집기위해 카누 쪽으로 걸어갔으며 무엇인가 왔다간 흔적들이 나있는 것을 보았을 때 카누를 수면위로 미끄러지듯 넣었다.

두 마리의 여우가 야영지로 왔었다. 배수도랑에 있는 텐트 주변과 부드러운 흙 위에 놓여있는 카누의 주변과 배낭아래 흔적들로 보아 한 마리는 적당한 크기고 다른 한 마리는 조금 작은 크기의 늑대였는데 배낭 아래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살폈다. 그들은 카누와 텐트에 오줌을 눈 다음 가버렸는데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었지만 브라이언에게 늑대들의 방문을 알리기에는 충분했다.

브라이언은 웃었다. 늑대들이 브라이언에게 인사를 하는 표시거나 브라이언이 형편없는 가수였다는 것을 말하는 표시일 가능성이 있다. 카누에 짐을 싸서 넣고 떠나기 바로 전에 늑대들이 표시를 남겼던 두 개의 장소로 올라와서 브라이언의 오줌으로 표시를 했다. 너도 역시 안녕, 이라고 하고는 오줌을 누었다. 그런 다음 카누로 들어가서 미끄러지듯 노를 저어 갔다.

1마일도 채 못가서 숲 터널에서 초록세상 아래로 다시 오자 다음 호수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궁금해졌다. 지도에는 호수가 길게 표시되었는데, 거의 8마일 정도는 되어보였으며 다음 호수까지 약 반 마일 정도 육로로 간 후에 그 다음 호수는 적어도 6마일 정도가 되는 거리였다. 오늘은 그 호수들 2개를 지나야 하고 그러면 윌리엄즈 호수까지는 약 65마일 정도가 남았다고 생각했다.

숲 터널은 3마일이나 4마일정도 이어졌고 8마일 되는 호수로 다시 나오게 되었다. 그 곳에는 바로 브라이언의 얼굴에 와 닿는 미풍이 약간 불고 있어서 구멍조끼를 입었으며 호수 중류 쪽으로 바로 노 저어 나갔다.

노를 저어 나아가는 일은 어쨌든 순조롭게 잘 되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의 다리에 있는 통증은 거의 사라졌고 그냥 카누를 만지작거리며 나아갔고 작은 호수들을 가로질러 카누를 노 저어 녹색 수로로 내려갔는데 일이 아주 힘들지 않아 기분이 좋았고, 힘도 들이지 않고 팔을 펴서 노를 저으며 노를 단단히 죄고,

바람을 맞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기분이 좋게 느껴졌다.

브라이언은 규칙적으로 노를 계속 저었고 순조롭게 노저어가는 것 같았다. 가고 있는 반대방향에서 바람이 불어 작은 물결이 일어나는 시각적인 효과에 때문에 착각을 일으키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것 때문에 8마일을 가는데 4시간이 걸렸다.

“보기보다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이 틀림없어” 그가 말했고, 육로가 시작되는 호수 끝 바람이 불지 않는 지역으로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반나절을 허비했어...”

브라이언은 제방위에 카누를 끌어당겨 놓고 상황을 지켜보았다. 반마일에 모든 것을 옮겨야만 했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옮길 수는 없었다.

카누 중심 가까운 안쪽에 텐트를 묶고 카누의 옆 가름대 아래 노들을 묶어서 무게 중심을 잡았으며 활과 화살통도 묶었다. 카누 안에는 육로수송용 멩에가 하나 있었는데 목 언저리와 어깨에 맞게 조절했다.

한 개의 배낭은 곰 방지용 밧줄에 매어 나무에 매달고 다른 하나는 브라이언의 등에 살짝 엮었다.

그런 다음 카누로 이동해서 카누를 배 부분이 위로 가게 뒤집고는 카누 아래에 배낭을 넣고 브라이언의 어깨에 멩에를 매달았다.

처음에는 그의 다리가 땅으로 꺼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카누가 균형이 잘 잡혔고 걸음을 떼자 브라이언이 계속 갈수 있게 탄력을 얻었다. 육로로 걸어가는데 고작 20분이 걸렸다. 풀이 자라서 아무 길들이고 덮어버려서 길이 없었지만 긴 공터가 하나 있었고 먼 과거에 누군가가 도끼로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 나무에 표시를 해놓았다.

아마도, 원주민들이 여기에 올가미를 설치할 때 해 놓았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도끼 표시는 아주 오래되어 잘 보이지 않게 되었고 종종 거의 나무껍질로 덮여 있어서 어떤 것들은 표면에 작게 움푹 들어간 표적만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시는 전에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것이 때문에 브라이언이 표시를 만든 사람들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했다. 50년 전에나 아니면 더 되었다면 75년은 되었을 것으로 생각했다. 나무들은 거대한 소나무들이었고 표시들은 바닥으로부터 떨어져 잘 보존되어 있다.

표시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이건 간에 아마 지금은 죽고 없고 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없지만 표시는 남았다,

다음 호수에서 카누를 두었는데 곰의 흔적은 볼 수 없었지만 배낭을 나무에 매달아 묶어서 화살을 쏘게 준비된 활을 등에 매달고 다른 짐을 가지러 되돌아갔다.

브라이언이 되돌아가는 데는 겨우 10분이 걸렸다. 배낭을 내려놓고 등에 매단 화살 통을 벗었고, 배낭은 등에 지고 한 손에는 화살 통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화살 줄에 시위를 메워 놓은 수렵용 화살촉인 브로드 헤드에 달린 활을 잡고 카누가 있는 곳을 향하여 출발했다.

그가 사슴을 본 시점은 세 발작을 채 가지도 않아서였다. 뿔뿔이 달린 한 마리 수사슴, 작은 한 쌍의 뿔이 있는 젊은 수사슴이 멈춰서 있었다.

좋은 고기, 브라이언은 정말 양질의 고기를 생각했다. 고기에 대한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났고 땅으로 살며시 화살을 낮추며 일어나 활을 올려서 멈추었다. 사슴이 30피트 밖에 떨어져서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서 있는 것 같았다. 브라이언이 바라보는 동안 사슴은 머리를 돌려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서 지저귀는 곳을 바라보았다.

‘한방이면 쉽게 될 것이다. 정확한 한 방.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자 흥분으로 목이 메어 말문이 막히는 것 같았다. ‘내 것.’ 화살을 활에 갖다 대고 활을 들어 올려 화살을 당겼으며, 사슴을 보고 사슴의 심장을 겨냥해서 브로드헤드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다시 멈추었다. 브라이언은 화살 줄을 풀고 활을 내렸다.

아마 가을에 하지. 더운 날씨에는 고기를 저장할 수 없었다. 브라이언은 세끼나 네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고기를 얻고 나머지는 썩어버릴 것이다. 껍질은 가죽을 만들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의 고기는 버려질 것이다.



그는 물고기를 먹었는데 모두가 좋아했고 필요했을 물고기였다. 다른 고기로는 토끼나 들꿩을 잡을 수 있었지만 사슴고기는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낭비만 될 것이다.

“고마워,” 그는 큰 소리로 사슴에게, 브라이언을 지켜보고 있는 사냥감의 정령 같은 것이나 고기를 먹을 기회를 준 무엇인가에게 감사의 말을 했다. “고마워...”

브라이언의 목소리가 수사슴을 놀라게 했지만 여전히 서서 다시 먹이를 뒤지고, 두 번, 세 번, 그러더니 몸을 돌려 한 쪽으로 약간 튀어 나오기 전에 30이나 40 야드 되는 오솔길을 걸어갔다.

“고마워,” 브라이언은 수사슴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속삭였다.

친애하는 칼럼에게: 저는 오늘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는 내 부적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카누를 두었던 곳에 왔을 때 그 수사슴이 내 마음 속에 있었다. 브라이언 앞에 놓여있는 호수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거세지더니 코에 와 닿았고 어두워 질 때까지 다른 일을 끝내기에는 다행스런 일이었다.

잠시 동안 그곳에 서서 호수를 바라보면서 ‘예정보다 늦어 졌어.’ 라고 실은 생각했고 그에게는 계획된 일정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배우고, 찾고, 발견하고, 알기 위해서 거기 있었다. 여기나 저기서나 혹은 되돌아가서도 이런 일은 생길 수 있었다. 어느 시간에 일어난다는 조건은 없었다.

브라이언은 다시 그 사슴을 생각하다가 물고기외 다른 고기를 생각하게 되었다. 갑자기 배가 고팠고 육로수송 중에 야영을 하기로 결정하고 쌀과 고기를 넣어 몽근하게 끓인 죽을 만들기 위해, 좀 더 양이 많은 다른 고기로 들꿩이나 토끼라도 사냥하기로 했다.

카누를 호수 위 나무에 높이 묶어놓고 그의 배낭들을 공중에 매달아놓았으며 밤 동안 쓸 충분한 땀감을 찾았지만 더 이상 구름 낀 날씨는 아니어서 카누 아래 비에 젖지 않도록 나무더미를 쌓아놓았다. 그래야 비가와도 모닥불을 피울 수가 있었다.

그런 다음 사냥했다.

다시 등에 화살 통을 매고 수렵용 화살촉인 브로드헤드를 떼어내어 화살 통에 다시 넣었는데 이는 작은 사냥감을 택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소형 사냥용 화살촉을 꺼내고 - 이 화살촉은 예리하지만 화살의 충격을 일으키는 굵은 어깨모

양의 돌출부가 있고 최첨단 브로드헤드보다는 짐승을 더 빨리 죽이는 것으로- 그는 활에 화살을 갖다 대었다.

브라이언은 미끄러지듯 숲으로 들어갔다. 테니스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북미 인디언 신발인 모카신을 신고 싶었지만 모카신은 특별한 경우에만 신어야만 했다. 초록색 풀이 있어서 신발에서 나는 소리가 아주 조용히 났다.

한 발, 두 발, 천천히 짙은 녹음 속으로 들어갔다. 1야드, 2야드, 10야드. 그의 오른쪽으로, 이따금 나뭇잎을 통하여 보이는 호수를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냥감을 놓칠 염려는 할 필요가 없었다.

거의 즉시 토끼 한 마리를 보았고 충분히 쉽게 쏘아서 사냥을 끝낼 수도 있었지만 마치 칼이 물속으로부터 끌어당겨지는 것처럼, 숲이 그에게 다시 가까워지는 것처럼, 모든 움직임을 보고 있는 그의 눈과 모든 바스락거림을 듣고 있는 그의 귀처럼 그는 지금 천천히 숲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되고자 했던 것이다’라고 브라이언이 생각했다. 사냥꾼. 서둘러야 할 필요가 없어졌고 죽어야만 할 필요가 있는 것도 거기 있었던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오후 늦게 저녁까지, 아마도 어두워지기 2시간 전까지 일했던 것 같았다. 브라이언은 토끼 일곱이나 여덟 마리를 보았는데 그 중에 어느 토끼는 잡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여러 마리의 들썩소리를 들었고 네 마리 이상의 사슴을 보았으며 사슴 중에 두 마리는 쉽게 쏠 수도 있었지만 브라이언은 기다렸고 이제 몸을 돌리자 한 마리의 들썩이 브라이언 앞에 뛰어날아 날개를 퍼덕이며 약 25피트 떨어져 있는 자작나무 위 큰 나뭇가지로 날아갔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 브라이언은 활을 올려서 활시위를 당겼고 나무로 된 화살대를 내려다보았으며 화살이 어디에 맞을 것인지를 직감하고 한 방에 쏘았다.

쏜 화살은 브라이언이 쏘려고 하는 곳에 날아갔고, 거의 들썩 몸의 정 중앙에 맞았으며, 들썩은 잠시 동안 나뭇가지에서 돌면서 떨어지더니 나무아래 풀밭에 떨어졌다.

“고마워,” 브라이언은 들썩이 죽자 속삭였다. “식량을 위해 죽어줘서 고마워.”

브라이언은 들썰을 집어 들고 화살을 빼냈고 풀밭위에서 닳고 난 뒤 한 개의 짧은 나일론 줄로 들썰을 그의 벨트에 묶었고 돌아가기 시작했다. 사냥은 끝났지만 활은 화살 줄에 화살을 두어 쏠 준비를 해 두었다.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다. 태양은 나뭇가지 아래에 걸려있었지만 아직은 해가 있어 밝았다. 텐트를 세우고, 모닥불을 피우고, 저녁요리를 하고, 여행 기사를 쓰는 등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빨리 걸어 아직도 짙은 녹음이 있는 카누를 놓아 둔 근처에 왔을 때 브라이언은 연기냄새를 맡았다.

그는 멈추었다. 소나무 냄새였다. 냄새가 나는 곳을 볼 수도 없었고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었지만 확실히 냄새가 나는 기미가 있었다. 냄새가 사라졌다가 브라이언이 움직이자 다시 냄새가 났다.

어떻게 불이 붙었을까? 폭풍우도 없었고 번개도 없었는데, 번개는 대부분의 산불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읽은 적이 있다. 최근에 비가 와서 산불이 날 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에 탄 냄새가 났다. 다시, 브라이언이 몇 발자국을 앞으로 이동해서 멈추었다가 돌에 부딪치는 금속이 쟁그랑거리는 소리를 듣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누군가가 있었다. 앞에. 야영지에.

브라이언은 몸을 쭉그려 앉았다가 한 번에 한 발자국씩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숲 가장자리에 올 때까지 다시 이동했다. 나뭇가지를 한 쪽으로 치우고 내다보았다.

한 남자가 브라이언 쪽으로 그의 등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브라이언 물건 옆에 다른 카누를 끌어당겨 있었는데 외관상으로 보아 카누에 마일이 기재된 낡은 표준유리섬유로 된 12피트짜리 카누였다. 그 남자는 뺨감을 더 모아 놓았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냄비에 물을 끓이고 있었다. 브라이언은 수증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보이는 무기도 없었고 다른 장비도 없었다. 단지 거꾸로 뒤집어놓은 카누와 남자와 모닥불. 남자는 검은 머리가 섞인 흰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모자는 쓰지 않았지만 머리띠는 했고 머리는 뒷머리를 하나로 묶어 늘어뜨렸다.

브라이언은 움직이지 않고 말없이 이 모든 것을 보았다.

“당신도 모닥불 옆으로 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나는 그리 오래 쳐다 볼 정도로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양파를 넣고 요리 할 감자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당신이 잡은 들팽을 넣고 약간 걸쭉한 스투를 만들어 먹읍시다.”

브라이언은 재빨리 움직였다. 목소리는 짜증나고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였고 목소리에 여러 곳에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억양이 있는 것 같았다. 아직도 정확한 목표물을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준비된 활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활을 내리고 짙은 덤불숲을 나와서 모닥불 쪽으로 걸어갔고 아직도 시위를 메겨놓은 활을 내려놓았다. 이 남자는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 있는지? 등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대답을 했다. 그는 숲에서 왔고, 브라이언이 사냥하는 동안 카누로 왔고, 브라이언이 있는 곳에 그가 왔고, 그 남자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브라이언이 왔다. 브라이언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 남자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고 그래서 브라이언은 묻지도 않았다.

하지만 브라이언을 궁금하게 만든 한 가지는 몰랐다. “어떻게 내가 들팽을 잡았다는 것을 알았죠?”

“냄새로 알았죠. 당신의 화살이 위장을 쏘았고 화살이 통과하면서 묻은 어떤 냄새가 났어요. 들팽 내장 같은 냄새는 나지 않았어요.”

“아...” 냄새가 호수 뒤 주변 야영지로 오기 좋게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남자는 매우 예민한 코를 가지고 있어서 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게 틀림 없었다.

그는 호수 가장자리로 내려가서 들팽을 깨끗이 다듬었다. 가죽에서 깃털을 떼어내고 물에 죽은 들팽을 씻었다. 그 남자가 일하는 동안 브라이언은 걸논질로 제방을 올려다보며 그의 방문객을 살폈다.

그는 브라이언이 추측하건데 연기와 날씨에 그을리고 주름진 얼굴을 한 50살 정도의 나이가든 남자였다. 아마 원주민 태생인 것 같았다. 그의 얼굴에는 매우

오랫동안 숲에서 지내온 흔적이 나타났다. 낡고 헤어진 모카신을 신고 있었고 낡은 작업복 바지와 갓에 단추가 채워지고 소매에 단추가 달린 작업복 상의를 입고 있었다. 모든 것이 낡았지만 수선이 잘 되어 있었다.

상의는 여러 번 조각 천을 대어 꿰매었고 조각천이 대어진 곳은 손으로 한 작은 바늘 땀으로 깔끔하게 바느질 되어 있었다. 그의 손은 마치 오래되고 광택이 나는 나무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사람들은 나를 빌리라고 부릅니다.” 남자가 말하면서 여전히 모닥불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는 브라이언입니다.” 남자는 들썩을 모닥불로 다시 가져가서 그의 칼을 사용해서 토막을 내어 적어도 3 겔런 용량의 알루미늄으로 된 낡은 냄비에 넣었다. 감자가 바로 끓기 시작했다.

브라이언은 배낭들과 침낭을 내렸다. 남자는 약간의 소금을 찾아서 죽에 넣더니 멈추었다. “소금 얼마나 넣을까요?”

“조금만요.”



남자는 소금을 자신이 좋아하는 양 보다는 적게 조금 넣었고 그런 다음 그의 냄비들 중 큰 것을 꺼내어 차를 넣고 끓이려고 올려놓은 마실 물도 넣었다.

그들은 말이 없었다. 죽이 다 되자 서로 고기를 약간 꺼내어 각자의 컵에 넣었다. 빌리는 주석으로 된 컵을 가지고 있었는데 낡고 단열이 되지 않는 컵이었다. 그런 컵에 담긴 뜨거운 것을 입에 갖다 대어도 아무렇지 않는 것 같았다.

그들은 묽은 스프 외에 모든 것을 다 깨끗이 먹었다. 브라이언은 들썩의 뼈들을 숲에서 떨어진 곳에 묻었고 다시 돌아와 앉아서 차를 마시고 모닥불을 바라보았다.

이제 어두워졌다. 달은 떠오르지 않았고 그들은 한참동안 말이 없었다. 브라이언은 사색에 잠겼고 한가롭게 그의 어머니나 칼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여기 브라이언이 낯선 남자와 같이 앉아 있고 그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자장 자연스러운 것 같았다. 어머니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졌다.

“당신은 옛날 방법으로 사냥하는군요.” 빌리가 말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진술하는 말이었다.

“뭐라고요?”

“화살로요. 당신은 옛 방식으로 사냥을 한다고 했어요. 총도 사용하지 않는데요.”

브라이언은 머리를 흔들었다. “나는 총을 좋아하지 않아요. 총은 너무 많은 충격을 주죠. 너무 많은 소음도...”

“총으로 쏘아대는 것은 동물들에게는 잘못된 방법이죠.” 빌리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손짓으로도 말했다. 손바닥을 흔들고 손가락들로 가리키고 거의 음악으로 말하는 것처럼 말로 춤을 추었다. “너무 빨라요. 빌어먹을 총들은 너무 빨리 죽이고 동물들에게 그들이 갈 장소를 생각할 시간과 동쪽으로 향하는 시간도 주지 않아요. 그들은 총에 맞았을 때 바로 저승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화살은 더 천천히 죽이고 동물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나는 총을 사용하지 않아요. 쓸모 없는 물건이죠.”

“저는 여기로 걸어오고 있는 오늘 사슴 한 마리를 보았어요. 서서 나를 쳐다 보았는데 그러다 가버렸고 다시 돌아왔어요. 저는 그 사슴을 쏠 수도 있었는데...” 브라이언이 왜 이 말을 했는지 몰랐지만 해야 할 옳은 일을 했다는 말 밖에는 할 말이 없었다.

“사슴이 시선을 돌릴 때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을 보았나요?”

브라이언이 그것에 대하여 생각했다. “네. 북쪽이에요. 육로 위쪽으로요.”

빌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슴이 당신의 부적 사슴인데 당신에게 가야 할 옳은 길을 말해주었어요.”

“부적 사슴이라고요?”

빌리는 하늘을 가리켰다. “저기 하늘에서 나를 위해 가르쳐 준 부적 까마귀가 있어요, 당신은 당신을 도와 줄 사슴 한 마리를 가졌어요. 언제나 사슴에게 귀 기울이세요.”

“그래서… 그럼 사슴을 사냥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요.”

“사슴을 사냥하는 것이 옳을 때는 그들이 당신에게 말해 줄 거예요. 귀 기울이세요 그러면 그들이 오늘처럼 당신에게 보여 줄 것입니다.”

브라이언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브라이언은 그 들쭉과 하마터면 쏘았을 토끼들에 대하여도 생각했다. 들쭉이나 토끼들이 다 같은 것은 아닌 것 같았다. 그 사슴은 눈에 띄었다. 브라이언은 빌리가 피곤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브라이언의 다리는 약간 뻣뻣했지만 아침에 출발할 때 보다는 훨씬 덜했다. 다리가 경직되어 있었지만 그 날 대부분은 바람을 맞으며 노를 저었고 육로로 이동하다가 사냥했다. 근육이 약간 결리다고 생각했고 배는 불렀으며 모닥불은 따뜻했다.

“잠잘 시간이네요” 라고 빌리가 말했다.

빌리는 그의 카누를 옮기고 카누 아래로 기어들어갔다. 카누의 옆 가름대 중 하나에서 낚은 담요를 꺼내어 담요에 몸을 감쌌고 브라이언이 텐트를 설치하는 것을 끝내기도 전에 잠이 들었다. 브라이언은 텐트 입구를 열고 그의 배낭을 텐트 안으로 넣고 눕자마자 잠이 들었다.



친애하는 칼럼에게: 내가 하려고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던 말을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브라이언은 서서히 깨었다. 하루 종일 힘들게 노를 저어서 생긴 뻗뻗함이 그의 몸에서 사라지고 아주 경미하게나마 몸이 풀리는 느낌이 대신 그 자리를 메웠다.

침낭을 열고 텐트에서 나왔는데 빌리가 가버린 것을 알고는 놀랐다. 카누, 낚은 요리냄비, 빌리의 모든 것이 없어졌는데 브라이언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브라이언은 야영지를 떠나 불일을 보고 돌아와서 그의 카누 가름대에 무엇인가 묶여 있는 것을 깜짝 놀랐다. 빌리는 더 가까이 갔다. 그것은 황갈색과 흰색이 있는 짧은 흰꼬리사슴의 꼬리털 한 개였는데 생가죽 고리에 까마귀 깃털과 그 옆에 사슴꼬리털이 묶여있었다.

브라이언은 그것이 부적이라고 생각했다. 빌리는 브라이언을 위해 그것을 남겨놓았다. 그는 그 고리를 목에 걸었다. 그의 부적으로 사슴 한 마리, 빌리의 부적으로 그의 목에 걸려 있던 까마귀 깃털. 이제 그는 사물을 보는 두 가지 방법을 가졌다, 알기위한 두 가지 방법을...

브라이언은 후에 빌리를 떠올리고 자신을 떠올리고 어떻게 되어있을지를 생각했고, 빌리가 브라이언이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궁금해 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브라이언도 빌리가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가 궁금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죽을 같이 먹었고, 모닥불 곁에 앉았었고, 빌리가 카누에 짐을 챙길 때 자신이 했던 것과 꼭 같이 하는 빌리를 바라보고 있던 자신을 느끼고, 수평선과 하늘 아래 있는 브라이언을 보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도 족했다. 자신에 대해서 또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가 겪었던 세상과

같은 빌리가 겪었던 세상을 보고, 빌리가 말할 때 그의 손을 보고, 음악처럼 말하는 그의 말에 귀 기울여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바람도 한 점 없어서 그날은 열심히 노 저어 갔다. 지도로 브라이언이 판단하건데, 30마일 이상 왔다고 생각했고 윌리엄즈 호수까지는 아마도 60마일 남짓 남았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에 다시 저녁에 먹을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미끼 없는 낚시는 효과가 없어서 썩은 통나무에서 약간의 벌레들을 잡아야만 했다. 밥과 물고기를 먹었다. 전날 밤 먹은 들팽 죽은 맛이 있었고 감자는 그의 소화관에는 부담이 된 것 같았지만 밥은 맛이 있었다.

숙련된 솜씨로 텐트를 쳤다. 그날 밤 비가 내렸으나 심하거나 오래 내리지는 않았고 모든 것을 축축이 젖게 하기는 충분한 비였다. 물이 텐트에서 흘러 내려도랑으로 가서 호수로 흘러내려서 마른 잠자리에서 편안하게 잠을 잤다.

깨어나서 잠시 동안 텐트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다가 다시 잠자리에 들었고 해가 아침에 텐트에 비칠 때까지 다시 깨어나지 않았다.

그 날은 호수들 사이에 작은 시내들이 끼어있는 3개의 짧은 호수를 노 저어 갔다. 마지막 호수 끝에서 다음호수로 이어지는 시내가 아주 얇아서 카누에 브라이언이 탄 상태에서는 카누를 탈 수가 없어서 맨발로 나가서 그의 장비들을 카누 안에 넣은 채로 카누를 당기기 시작했고 늦은 오후에 시내를 따라 물속을 걸어서 건너고 있을 때 곰과 우연히 마주쳤다.

전에 곰을 본 적이 있었고 공격당한 적도 있고 또는 적어도 한 마리의 곰에게 공격당해 굴렀던 적이 있었는데 대개 곰들은 사람들을 해치지 않으며 혼자 내버려 두기를 원한다는 것도 알았다.

한 마리 어린 곰이었고 아주 엄청나게 크지는 않고 아마 200-250파운드 정도 되어 보이며 브라이언이 카누를 당겨서 돌아 올 때 개울에 나란히 있었다. 곰은 개울 한 쪽을 따라 통나무들을 뒤집으면서 유충을 찾고 있었다.

“경!” 개들이 짖는 소리와 정확하게 같은 소리를 냈다. 정확히 경, 그리고 일어섰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곰은 좀처럼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일어섰지만 도망가지 않을 때는 특별히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곰은 브라이언과는 3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아서 서 있었다.

브라이언은 브로드헤드는 아니고 사냥용 화살촉인 필드포인트인데 이 화살은 곰을 다치게 하지는 않고 아마도 화만 나게 만들 것이다. 화살 통에서 브로드헤드를 가지고 와서 쏠쑈에는 곰은 그를 이미 덮쳤을 것이다.

(가끔씩 곰들을 화나게 하기 때문에) 눈이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눈을 아래로 깔고 옆으로 보면서, 그들 사이에 카누의 각도를 대략 맞추기 위해 여전히 카누의 밧줄을 붙잡고는 천천히 뒷걸음 쳤다.

곰은 네 발을 내리고 브라이언을 향하여 돌진했다.

브라이언은 왼쪽으로 튀어 올랐다.

곰은 멈추더니 바라보고 브라이언의 왼쪽, 자기의 오른쪽으로 돌진했다가 브라이언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으로 향했다.

브라이언은 개울을 가로질러 돌아가려고 다시 그의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곰은 물속으로 돌진해서 이번에는 자기의 왼쪽으로 움직여 브라이언을 다시 오른쪽으로 몰았다.

브라이언은 곰이 나를 떠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곰이 나에게 제방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다. 곰이 내가 그러기를 원한다.

곰은 다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체 했고 브라이언을 다시 왼쪽, 오른쪽으로 몰아서 그 간격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다. 브라이언은 얇은 개울을 가로질러 들 사이에 카누를 두고 당기면서, 지그재그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건너편 제방에 가까이 왔다.

곰은 아마 고양이가 쥐를 갖고 노는 것처럼 브라이언을 갖고 놀면서 놀리며, 요리조리 브라이언을 가로 막고 궁지에 몰아넣었다. 곰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느꼈다. 곰이 자기를 먹이처럼 다루는 방법이 두려워지다가 완전한 분노로 바뀌었다.

“안 돼!”

그의 목소리가 브라이언을 벌떡 일어서게 했다. 곱은 딱 멈춰버렸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다시 일어섰다.

“나하고는 안 되지……” 브라이언은 먼저 선수를 쳤다. 카누에 가서 그의 활을 잡고 재빨리 화살 통에서 브로드헤드를 꺼내어 화살 줄에 시위를 당겨서 활을 들고 섰다.

그들은 6미터도 채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이제 눈까지 마주쳤다. 브라이언과 같은 높이로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 곱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브라이언의 눈에도 두려움이 없었다. 단지 서로의 눈들이 아주 날카로운 MA-3 브로드헤드들 사이에 두고 서로 노려보고 있었다.

“가버려.” 라고 브라이언이 조용히 말했다. 브라이언이 말하면서 침착하게 곱의 눈에서 그 아래 가슴의 중심으로, 그리고 심장이 고동치고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화살촉이 그의 눈이 가는 곳으로 내려갔고, 활을 반쯤 뒤로 젖혀, 활을 그의 턱 아래고 당기고 다시 부드럽게 말했다. “가 당장.”

이제 브라이언에게는 그의 손가락에 약간 떨리고 있는 화살과 활시위, 곱의 심장에 쏘 브로드헤드, 거기 서서 브라이언을 바라보고 있는 곱 말고는 어떤 것도 없었다. 새는 지저귀지 않았고 카누를 지나가는 물결도 일지 않았고 세상에 그와 곱 말고는 다른 어떤 것들도 없었다. 아마 옛날 보다 더 오래도록 곱 한 마리, 한 남자와 조용한 죽음만이 있었다. 브라이언을 향하여 곱이 움직이거나 으르렁거리거나, 돌격하거나, 어떤 잘못된 출발 혹은 잘못된 동작을 했더라면 브라이언은 활시위를 놓았을 것이다.

그 대신에 그 곱은 잠시 동안 어슬렁거렸는데 마치 영원히 그럴 것 같았다. 그러더니 곱이 결정을 내리자 코로 긴 한숨을 부드럽게 내쉬면서 네발을 천천히 내려서 몸을 돌려 브라이언이 왔던 길인 개울 바닥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곱은 돌아다보지도 않고 얇은 물을 따라 발을 질질 끌고 갔다

브라이언은 계속 곱을 화살로 겨냥했고, 곱이 계속 가려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자, 화살을 오래 당기고 있어서 팔이 떨려서, 활 시위를 조금 내리고는 숨을

쉬었다.

“좋아.” 그는 거의 속삭이는 듯 조용히 말했다.

“좋은데… 내 부적이 아주 강해.”

브라이언은 거의 노래처럼 빌리가 말하는 식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고, 왼손은 아직도 화살을 시위에 걸고는, 빌리의 말대로 그의 오른쪽 손을 움직였다는 것을 알고는 약간 놀랐다. 빌리가 말을 기억하며, 허공에 부적을 흔들어서 곰에게 손을 저어 가게 했다.

좋은 부적이군.

*친애하는 칼럼에게: 나는 내가 속한 곳에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속해 있어요.*

만약 브라이언에게 옛 생활에 배어 있던 어떤 것이 아직도 있었다면, 정말 미미한 부분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꿈과 같이 없어져 버렸다. 그가 꿈의 심장에 브로드헤드를 겨냥했을 때,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준비가 꿈처럼 제대로, 빠르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두렵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라졌다. 그는 꿈을 죽일 수도 있었고,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꿈과 함께였다.

심지어 숲과 함께.

심지어 그의 삶과 함께.



그날 밤은 텐트를 세우지 않았지만 모닥불을 피웠고 물고기조차도 잡지 않아서 소금을 넣은 간단한 밥을 먹었다. 그런 뒤 카누를 거꾸로 세워 카누 끝을 2피트 위 나뭇가지에 받쳐 넘어지지 않게 하고, 그의 배낭을 나뭇가지 아래 펴고는 잠이 들었다. 모기들은 잠시 동안 날아왔지만 그날 밤은 날씨가 시원해서 가버렸으며 브라이언은 잠을 푹 잤다.

다음 날 아침 차를 끊이고, 카누에 짐을 넣고, 1마일 되는 육로를 두 번 지나고 긴 호수를 지나느라고 도합 10시간 힘을 썼다. 지도에 의하면 30마일 못 미치는 거리를 걸거나 노를 저어 갔는데, 윌리엄즈 호수와 스몰혼즈 가족에게로 가려면 아직도 30여마일 남았다.

그 날 저녁, 밥에 섞어 넣을 물고기를 잡았는데, 다시 빈 미끼를 사용했다. 그리고 어두워지기 전에 셰익스피어 작품을 약간 읽었다. 아직도 로미오와 줄리엣이다. 여섯이나 일곱 번을 다시 읽어야만 했고, 브라이언이 이해했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호숫가에 서서 물위로 올려 퍼지게 큰소리로 말했다.

끝내기 바로 전에 브라이언은 청중에게 이야기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사냥하고 있던 수달 두 마리가 호숫가를 따라 오다가 멈추더니, 브라이언에이 한 행을 수달들에게 또 읽어주자 조심스럽게 물속에서 고개를 내고 누워서 떠다니면서 브라이언에게 귀를 기울였다.

*오, 초목, 돌 할 것 없이 그 본질 속에는 알 수 없는 약효가 들어 있어. 그러나 아무리 흉한 것 일지라도 세상에 이롭게 쓰일 때가 있네...*

브라이언이 이 대사를 끝냈을 때 수달들은 몸을 굴러 잠수했고 다시는 수달들을 보지 못했다.

“너희들은 박수를 쳤어야 했어,” 라고 하며 수달들을 뒤쫓았다.

“아니면 적어도 약효가 의미하는 것을 나에게 말했었어야 ...”

하지만 수달들은 가버렸다.



다시 텐트로 없이 카누아래 잠을 잤다. 그날 밤 비가 약간 내렸지만 카누는 물을 저절로 흘러내리게 해서 브라이언은 젖지 않게 지냈고 아침이 밝아오자 가끔씩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 소리가 브라이언을 깨웠고 다시 잠 들었을 때 빌리 꿈을 꾸었다.

이상한 꿈이었다. 빌리가 거기 숲에 있었고 그는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무에 큰 나뭇가지하나, 서있는 사슴 한 마리, 달을 가로 질러 날고 있는 오리 한 마리. 매번 빌리는 자신을 가리켰고 그러더니 그 장면으로 되돌아갔고 마지막에는 브라이언을 가리키고 그 다음은 빌리를 다음에는 브라이언을 다시 가리켰고 그때 브라이언이 꿈에서 깨어나서 벌떡 일어나 앉았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꿈이어서 카누 안쪽에 머리를 부딪쳐보았다.

그가 왜 깨었는지 궁금해 하며 잠시 동안 거기에 앉아 있었다. 어두워졌지만 날씨가 맑아서 달빛이 비추어서 밝았고 동쪽에 희미하게 빛이 비치고 있었다. 어

편 것도 야영을 방해하지 않아 그를 깨우지 않았고, 빌리와 그 꿈을 기억했다.

빌리가 그곳에 있었다. 빌리는 그의 부적이었다. 그 사슴, 아마도 빌리도 마찬가지이다. 브라이언이 빌리를 만났을 때 앞으로 10년 후 숲과 함께, 숲과 동화되어 살아온 나무에 조각된 것 같은 한 노인이 자신을 만나고 있었다는 생각이 번뜩 났다. 앞으로 될 자신의 모습이 아주 나쁘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어나서 모닥불을 정리하고 차와 각설탕을 가지고 와서 짐에 넣고 날이 밝기 전에 호수에 있는 카누로 옮겼다. 연이어지는 긴 호수가 있었고 그 날 브라이언은 수월하게 윌리엄즈 호수와 스몰혼즈네에 도착할 수도 있었다.

브라이언은 노를 깊이 넣어 한 번 저어 나가자 카누가 앞으로 벌떡 치솟아서, 카누 안에 묶여진 배낭, 브라이언 앞에 놓여있는 화살 줄에 보로드헤드 화살촉이 끼워있는 그의 활도, 같이 치솟았고, 햇볕에 갈색으로 탄 그의 목에 걸고 있는 부적을 제외하고 반바지만 입은 브라이언과 카누와 호수, 그리고 아침과 공기도 같이 뛰어 올랐다. 그리고 스몰혼즈네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시각은 호수를 건너 한 시간을 온 후였다.

커다란 지도였다. 보이는 많은 호수들과 강들이 있었다. 갈 곳도 더 많이 있고 스몰혼즈네는 여전히 후에도 그곳에 있을 것이다. 스몰혼즈네를 찾을 때가 되면 그는 스몰혼즈네를 찾을 것이다. 당분간 이 길로 갈 것이다. 그런 다음 아마도 해를 따라 서쪽으로 갈 것이다.

저 앞에 호수의 끝이 있었고 그 앞에 다른 호수의 끝이 있었고, 그 앞에 숲이 있었고, 그 앞에는 그의 삶이 있다.

브라이언은 그의 삶을 찾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노를 물에 깊이 담그고는, 그의 어깨와 팔에 힘을 고르게 분배하여 당겼다. 카누가 활기를 띠고 앞으로 뛰어 오르는 것 같았다. 브라이언은 그의 부적을 따라 갈 것이다.



## 저자의 주

나는 『손도끼』를 썼던 그 당시 숲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자, 이 책을 쓰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손도끼”나 “강” 또는 “브라이언의 겨울”을 쓰기 전에 내가 이 책을 쓸 것이라고 언제나 알고 있었다는 것이 아마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여러분이 오지나 야생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많은 일이 생기고 당연히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에게 나타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후유증과 마찬가지로 야생에서 살았던 사람에게도 약간의 후유증이 있다. 만약 그런 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사람이 다시 정상적으로 되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약 11살 정도 되었을 때 사냥을 시작했고, 텃을 놓고, 미네소타의 북부 숲에서 낚시를 했다. 내 어린 시절의 까다로운 성격 때문에 나는 집에 있을 수 없었고, 오래된 레몬나무로 된 활과 6개의 수제화살이나 낚고 닳았으며 반 밖에 안 터지고 절대 제대로 맞지 않는 단방 레밍톤(총기의 상표) 22소총(나는 주머니 칼끝으로 다 써버린 탄약상자를 파야만 했다중 하나를 가지고 숲에서 학교 성적이 떨어지게 만드는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이 책에 있는 브라이언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들은 내 생애 어느 시점이나, 다른 시점에 나에게 일어났다. 나는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두 번이나 불시착한 경우가 있었지만 손도끼에서의 브라이언의 경우와 같이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비행기 사고는 진짜 사고에 근거해서 쓴 것이다)

나는 사냥을 많이 했고 스트레이트 활을 사용해서 아주 많이 사냥을 약간씩 했다. 여러 번 사슴에게서 공격당했고 이 책에서 브라이언이 했던 것처럼 곰과 “놀아”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먹이처럼 느껴지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경험

이었다) 암사슴이 카누로 파리들을 피하려고 뛰어 들어 온 적도 있고, 브라이언이 먹었던 것을 먹었고, 브라이언이 요리했던 방법으로 불을 피워 요리했다. 이 책에서 브라이언이 했던 대로 일했고 카누 아래서 잠을 잔적도 있으며, 땅의 임시거처나 구멍 속에서 살기도 했고, 나 자신의 “부적”을 찾았고 그 효력을 믿었다(나의 부적은 빌리의 것과 비슷한 까마귀깃털이었다).

거의 12년 동안 나는 완전히 오지에서 살았다. 그 기간의 대부분은 내가 사냥을 안했거나, 채소를 안 길렀고, 숲에서(열매들과 헤이즐너츠)를 안 주워왔다면 나는 아무 것도 못 먹었을 것이다. 아마 브라이언도 그렇게 할 것이지만, 숲에서 가져온 것으로 가족을 부양했다. 우리는 소금 양념들과 옷가지만 가져왔다. 모든 식량과 거처와 연료는 숲이나 뒤뜰에서 가져왔다. 내가 먹은 식량의 질이 지금 가게에서 살 수 있는 채소나 고기 등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고(하지만 나는 지금 채식주의자이다) 그 때가 내 삶에서 가장 건강했던 시기였다.

여러분이 일단 수평선을 보면 수평선을 따라 가서 자연의 치명적인 아름다움에 빠져, 자연과 살아버리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온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나는 브라이언처럼 하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에 마을에 마당과 이웃이 있는 집을 샀다. 일주일도 안돼서 나는 표범처럼 우리 안을 왔다 갔다 하고, 바깥에 도시 너머 언덕들과 나무들과 숲만 바라보았다.

나는 그렇게 살 수는 없었다. 뉴멕시코의 산에 있는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오지의 작은 마을이었지만 5킬로미터 밖에 이웃들이 있고 작은 마을로 가려면 20킬로만 가면되었다. 나무와 하늘과 수평선도 볼 수 있어서, 한 동안 미쳐버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직도 그곳도 충분치 않았고, 단지 자연인 척 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한 번에 여러 날을, 나를 멈추게 할 한 개의 울타리를 칠 때 까지 나는 말을 타고 더 긴 여행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결국에는 전과 똑같이 되었다. 나는 천천히 걸었고, 나를 묶어놓은 상상의 사슬을 잡아당겼고, 수평선으로 향하여 갈 수 없는 것을 싫어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눈썰매 개들을 발견했고 이디터로드(개썰매경기)에 두 번 나갔다.

그런 두 경기에 나간 후 내가 심장병이 심해졌을 때 개썰매 경기를 포기해야

만 했고 북부의 겨울에서 살 수가 없었고, 북부의 겨울이 나를 거부했다. 하지만 여러 번 시도는 했었고, 브라이언이 책에서 했던 것처럼 오지로 돌아 갈 수는 없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 될 것인지도 확실하지도 않았고 바다를 되찾지도 못했다.

바다가 나를 구해주었고, 바다는 계속해서 나를 구해주고 있었다. 나는 언제나 바다를 사랑했고 내 인생에 있어 가끔 작은 배들을 가졌었고 항해했으며 단지 캘리포니아의 지방들을 항해하는 그런 긴 여행은 아니었다. 해안을 떠나 멀리 나갔고 멕시코 산악에 있는 오두막에 있던 시간에 여전히 너무 “길들여” 있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을 때( 길들여 있다는 것이 적절한 말인지) 나는 언제나 있었던 그 곳 바다를 다시 찾았고, 낡은 115미터 길이의 요트를 사서 2년 동안 수리했고, 아마 오직 위대한 야생이 남겨진 진 곳, 태평양으로 나갔다.

나는 지금 태평양에 있다. 1997-98년의 겨울이다. 엘니뇨 때문에 봄까지 태평양을 횡단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되었다. 보트의 부속 몇 개는 항해를 하면 고장 나기 마련이므로 이를 수리하는 동안 산디에고에 정박하고 있다.

나는 그 보트를 (보트들은 생명과 영혼을 가진 여성이므로) 펠리시티라고 명명하고, 그 보트로 코르테즈의 바다를 보려고 멕시코로 두 번 여행을 했다. 지난 봄 나는 그 배로 멕시코에서 미국의 서해안으로 항해하고, 계속 그 위 알래스카 해로로 들어가서는, 돌아서 알래스카 해로를 벗어나 산디에고로 돌아왔다. 이는 하와이로 가서 마살군도로 내려가, 그 곳에서 호주까지 횡단하려고 준비하기 위해 내려온 것이었다.

불행하게도 브라이언이 오지로 가는 귀향길에서 찾은 것처럼 한 사람이 제안 할지도 모르지만 자연은 거절했다. 엘니뇨가 방해했고 샌디에고와 하와이 사이의 바다를 폭우와, 펠리시티가 반항 할 수 없는 거센 남서풍을 동반하고 후려치고 있었다.

그래서 갈매기들이 공용부두에서 덤스터( 금속제의 대형 쓰레기 수집용기)에 있는 쓰레기를 뒤집으며 싸우고 있는 동안 나는 휴대용 컴퓨터로 이 글을 쓰고 있다. 보슬비가 내리고 있고, 나는 내가 기다리는 동안 테이프 재생장치에서 흘

러나오는 모차르트를 듣는다는 생각으로 내 머리 위 천장에 난 채광 창문위로  
빗물이 무늬를 만들며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머지않았다. 바람이 변할 때 까지만. 그런 다음 언제나 브라이언이 가야만 했  
던 것처럼 나는 다시 갈 것이다.

게리폴슨

1998년 2월, 샌디에고 만

범선 펠리시티 호에서



## 브라이언의 온갖 모험담을 읽어 보세요!

칭송받는 작가이자 뉴베리상 수상자인 케리폴슨이 독자를 사로잡는 고독과, 용기, 최종적 생존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진정한 단편 소설을 놓치지 마세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으시면 [Gary Paulsen.com](http://GaryPaulsen.com)으로 방문해 주세요.



“폴슨은 생존 작가 중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작가들 중의 한 명이다.”

- 뉴욕 타임즈 -

# 게리 폴슨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나요?

게리 폴슨

Woods Runner

사무엘은 그의 유년 시절을 숲속에서 보내고 가족의 식량을 얻기 위해 사냥에 나섭니다. 도로나 전쟁의 소식을 접하기 어려운 국경지역에서 지내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독립전쟁(1775-83)이 발발하여 가족구성원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칩니다. 사무엘의 부모님은 죄수로 숲을 떠나 끌려가고 사무엘은 그들을 찾아 적군이 있는 지역 깊숙이 가야만 하는데... 영국 군대 주둔지로 가는 내내 벌어지는 모험이 펼쳐집니다.



게리 폴슨은 세 권의 뉴베리상 수상작품, The Winter Room, Hatchet와 Dogsong 등 젊은이를 대상으로 쓴 책들이 비평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저명한 작가이다. 그는 청소년 문학에서 전 생애 업적으로 기념될 만한 에드워드상을 ALA로부터 받는 영예를 안았다. 랜덤하우스가 펴낸 저서로는 Flat Broke; Masters of Disaster; Liar, Liar; Woods Runner; Lawn Boy; Lawn Boy Returns; Notes from the Dog; Mudshark; the Legend of Bass Reeves; The Amazing Life of Birds; the Time Hackers; Molly McGinty Has a Really Good Day; The Quilt(Alida's Song and The Cookcamp의 자매편); How Angel Peterson Got His Name; Guts: The True Stories Behind Hatchet and the Brian Books; The Beet Fields; Soldier's Heart; The River; Brian's Winter, Brian's Return, and Brian's Hunt ( Hatchet 의 자매편); Father Water, Mother Woods 그리고 옛 서부 프랜시스 터킷의 모험에 관한 다섯 권의 저서들. 게리 폴슨은 어른들을 위한 소설과 비소설도 발행하였다. 아내, Ruth Wright Paulsen 은 남편의 몇몇 작품에 삽화를 그린 화가이기도 하다. 그는 알래스카에 있는 집과 뉴멕시코의 농장에서 지내기도 하고 태평양에서 보트로 향해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웹사이트Gery Paulsen. com에 들어오시면 그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다.

게리 폴슨은 엄선된 저술활동과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출연 여부가 궁금하다면, 랜덤하우스 rhspeaker@randomhouse.com 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문헌

### 1. 국내서

서계인(1999), 『영어 번역의 기술』, 북라인.

안정효(1951), 『번역의 테크닉』, 현암사.

### 2. 번역서

김민석 역(2001). 『손도끼』 (*Hatchet*). Gary Paulsen 저